한국여성단체연합 10주년 기념 국제여성평화심포지
KWAU 1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SAe.c.9

21세기 평화와 여성운동

여성 · 평화 · 화해

The Women's Movement & Peace in the 21st Century

WOMEN · PEACE · RECONCILIATION

- 일 시(DATE) :1997 6. 19. - 20. AM. 9:00
- 장 소(PLACE)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Ewha Womans University Conference Hall, Centennial Museum)
- 주 최(HOST)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Women Making Peace)
- 후원(SPONSOR):미국친우봉사위원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이화여대 아세아여성학센타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한국여성단체연합 10주년 기념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KWAU 1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21세기 평화와 여성운동

-여성 · 평화 · 화해-

The Women's Movement & Peace in the 21st Century

- WOMEN · PEACE · RECONCILIATION -

일시(DATE) : 1997. 6. 19. - 20. AM. 9:00

장소(PLACE)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Ewha Womans University Conference Hall, Centennial Museum)

주최(HOST) :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 Making Peace)

후원(SPONSOR) : 미국친우봉사위원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이화여대 아세아여성학센타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 심포지움 프로그램 ♥

(1) 6월 17일 (화) 6시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카페테리아

*** 사회 : 신혜수(여연 국제협력위원장)**

17:30-18:00 등록
18:00-19:00 개회
환영사 : 이효재(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준비위원장)
주최단체 및 후원단체소개
외국 참가자 소개 및 인사
한국참가자 소개 및 일정 안내
여연 10년 운동사 비디오 상영
19:00-21:00 식사

(2) 6월 18일 (수) 사진작가 이지누와 함께 가는 분단현장 체험

08:30-19:00 서교호텔 앞 집결 -> 철원으로 출발

(3) 6월 19일 (목) 9시30분, 장소 : 이화여대 박물관 시청각실

*** 사 회 : 한명숙 (한국여성단체연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10:00-10:30 인사말 : 이우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축 사 : 박용길(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이사장)

10:30-11:00 주제강연 : 21세기 세계평화와 여성
이효재(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준비위원장)

*** 사 회 : 정현백(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대표)**

11:00-12:30 참가국 보고 I : 분쟁 하에서의 여성의 고통과 극복을 위한 활동보고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Selma Hadzihalilovic(Center for Women Returnees소속 여성평화운동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회민주주의연맹 국제협력위원)

-동티모르 : Ines Almeida(East Timor Relief Association 소속 여성평화운동가)

-남아프리카공화국 : Ellen Mbere (평화운동가)

12:30-14:00 점심식사

14:00-14:40 질의 및 응답

*** 사 회 : 이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 부대표)**

14:40-16:00 참가국 보고 II : 분쟁 하에서의 여성의 고통과 극복을 위한 활동 보고

-남한 :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독일 : Tatjana Ansbach(인권변호사, UN차별방지위원회 옵저버, 훔볼트대 교수역임)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 Freedom 평화와 자유를 위한 세계여성연맹)

: Betty Burkes (WILPF 미국 지회장, 86년전쟁장난감 거부운동 주도, 평화교육(분쟁, 인종갈등, 성폭력, 성차별, 화해 ,공동체건설)전문가)

16:00-16:20 휴식

16:20-17:00 질의 및 응답

리셉션 - 장소 : 연세대 동문회관 대회의실

18:00-18:30

* 사회 : 신혜수 (여연 국제협력위원장)

- 인사말 : 지은희(여연 상임대표)
- 내빈소개
- 축사: 신낙균(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18:30-19:30 식사

19:30-20:30 * 사회 : 이상덕(한국여성의전화 상임 부회장)

- 안혜경의 노래, 외국인 참여시간
- 김경란의 평화를 위한 춤과 노래
- 평화수건 잇기, 어우러지는 시간

(4) 6월 20일 (금) 장소 : 이화여대 박물관 시청각실

주 제 : 한국의 평화와 화해 및 국제여성평화연대를 위한 전략

*** 사회 : 선순화(기독여민회 회장)**

08:30-09:00 등록

09:00-09:30 기념 사진 촬영

09:30-10:00 소주제1 : 한반도의 평화, 화해, 통일의 장애요인과 희망적 요인

남한 : 김희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장)

10:00-10:30 소주제2 :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

남한 : 김윤옥(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대표)

10:30-10:50 휴 식

10:50-12:00 논찬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Selma Hadzihalilovic

(Center for Women Returnees소속 여성평화운동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회민주주의연맹 국제협력위원)

독일 Tatjana Ansbach(인권변호사, UN차별방지위원회 옵저버, 훔볼트대 교수 역임)

동티모르 Ines Almeida(East Timor Relief Association 소속 여성활동가)

남아프리카공화국 Ellen Mbere (평화운동가)

12:00-13:30 점심식사

*** 사회 : 신혜수(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협력위원장)**

13:30-14:30 소주제 1. 2에 대한 토론

14:30-14:50 휴식

14:50-15:20 소주제 3. 국제여성평화네트웍을 어떻게 구축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 Betty Burkes (WILPF 미국 지회장, 86년 전쟁장난감 거부운동 주도, 평화교육 전문가)

15:20-16:40 종합토론(소주제3과 결의문 채택에 대한 종합토론)

16:40 폐회사 : 이효재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준비위원장)

♥ PROGRAM ♥

▼ 17 June, 1997 (Tuesday) : First day (Press Center 19 Floor Cafeteria)

10:00-16:00 Arrival

17:30-18:00 Registration

18:00-19:00 Opening Supper

* Presider (Shin, Hei-Soo, Chair, International Relation Committee, KWAU)
  - Opening Remark :
    (Lee, Hyo-Chai, Chair of Preparatory Committee of Peace Symposium)
  - Introduction of Sponsor & Host
  -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nd Program
  - Video : 10 Years History of KWAU

19:00-20:00 Dinner

20:00-21:00

▼ 18 June, 1997 (Wednesday) : Second day(Chulwon)

08:30-19:00 Exposure Program : Experience on the Divided Land

19:00-21:00 Dinner

▼ 19 June, 1997 (Thursday) : Third day

(Ewha Womans University Conference Hall, Centennial Museum)

09:30-10:00 Registration

* Presider (Han, Myong-Sook, Chair, KWAU 10th Anniversary Committee)

10:00-10:30 Opening Remark (Lee, Oo-Chung, President, Women Making Peace)
Congratulatory Speech (Park,Yong-Gil, President, Preparing Toward One Korea)

* Presider (Chung, Hyun-Baek, Vice-President, Women Making Peace)

10:30-11:00 Keynote Speech : "The Role of Women in Peace Movement"
(Lee, Hyo-Chai, Chair,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Symposium)

11:00-12:30 Individual Country Reports : "The Suffers Experienced by Women and the Activities to Overcome them"
- Bosnia & Herzegovina :
Selma Hadzihalilovic (Sarajevo Center for Women Returnees)
- East Timor : Ines Almeida (East Timor Relief Association)
- South Africa : Ellen Mbere(Peace Activist)

12:30-14:00 Lunch

14:00-14:40 Q & A

* Presider : Lee, Hyun-Sook
(Standing-vice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14:40-16:00 Individual Country Reports Continues
- South Korea (Chi Eun-Hee, Standing-Representative, KWAU)
- Germany : Tatjana Ansbach (Lawyer)
- WILPF : Betty Burkes (President of U.S. Section)

16:00-16:20 Tea Break

16:20-17:00 Q&A

18:00-21:00 Reception (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Building)
- Presider :
Shin, Hei-Soo (Chair, International Relation Committee, KWAU)
Lee, Sang-Duck (Vice-President, Korea Women's Hot Line)
- Peace Performance (Presented by An, Hye-Kyung & Kim, Kyong-Ryan)

▼ 20 June, 1997 (Friday) : Fourth day
(Ewha Womans University Conference Hall, Centennial Museum)

Strategies for building peace & reconciliation and Women's International Peace Solidarity.

09:00-09:30 Anniversary Photography

* Presider : Sun, Soon-Hwa (President, Christian Women Minjung Association)

09:30-10:00 - Topic I :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 the Road to Peace,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Kim, Hee-Eun (Vice-President, Women Center for Social Research)

10:00-10:30 - Topic II : Actions for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of Two Koreas
Kim,Yoon-Ok (Vice-President, Women Making Peace)

10:30-10:50 Tea Break

10:50-12:00 Comments (Bosnia & Herzegovina/ Germany/ East Timor/ South Africa)

12:00-13:30 Lunch

* Presider : Shin, Hei-Soo(Chair, International Relation Committee, KWAU)

13:30-14:30 Q & A and Discussion

14:30-14:50 Tea Break

14:50-15:20 Topic III : "How can we make the International Women's Peace Network and the Role of the Network".
: Betty Burkes (U.S. President, WILPF)

15:20-16:40 General Discussion & Records of Resolutions

16:40 Closing Remarks

Lee, Hyo-Chai (Chair,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Symposium)

♥ 목 차 ♥

인사말 13P

주제강연 : 21세기 세계평화와 여성 17P

참가국보고 : 분쟁 하에서의 여성의 고통과 극복을 위한 활동 보고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31P

*동티모르 33P

*남한 51P

*독일 71P

*WILPF 79P

한반도의 평화, 화해, 통일의 장애요인과 희망적 요인 93P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 109P

국제여성평화네트웍을 어떻게 구축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123P

논찬 ..... 133 P

♥ CONTENT ♥

Opening Remark ..... 14 p
Lee Oo-Chung, President, Women Making Peace

Keynote Speech : Women and World Peace in the Twenty First Century ..... 22 p
Lee Hyo-Chae, Chair,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Symposium

Country Reports
- Bosnia-Herzegovina ..... 31 P
  Selma Hadzihalilovic (Member of the International Depatment of the Union of the BH social democrats)
- East Timor ..... 40 P
  Ines Almeida (East Timor Relief Association)
- South Korea ..... 60 P
  Chi Eun-Hee (Standing-Representative, KWAU)
- Germany ..... 74 P
  Tatjana Ansbach (Lawyer)
- WILPF ..... 84 P
  Betty Burkes (President of US Section)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 the Road to Peace,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 100 P
Kim Hee-Eun (Vice-President, omen Center for Social Research)

Actions for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of Two Koreas ..... 115 P
Kim Yoon-Ok (Vice-President, Women Making Peace)

A Process for Women Creating an International Women's Peace Network : The tasks and Roles of thatNetwork? ..... 127 P
Betty Burkes (US President of WILPF)

Comments ..... 133 P

♥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

이우정(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한국인에게 있어 6월은 가장 비극적인 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600만명(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970년 통계임)의 희생자와 300만명의 피난민 그리고 1천만명의 이산가족(한극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회 선언, 1988년)을 발생시킴으로써 이 땅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6.25전쟁 때 한반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동안 유럽 전 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되어 이땅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멎었지만 이후 민족분단은 장기화되고 남북한 간에는 군비경쟁, 상호불신, 상호 비방, 적대감정이 누적되고 이산가족간의 서신왕래나 방문도 두절된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50여년간 지속된 분단체제는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북과의 대치상태를 이유로 오랜 군사정권의 지배를 견뎌야 했고, 안보라는 이름아래 종종 인권이 유린되고, 막대한 예산을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복지생활을 유보당하고 있으며 미군주둔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주둔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폭력과 성범죄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한반도에서는 구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국가간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어 상존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었다고는 하나 냉전종식이 이 지역의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동족의 반이 지금 엄청난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도 식량을 싣고 달려 갈 수도 없는 가장 비인도적 상황이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없는 세상,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세상,하늘의 절반인 여성이 주체로 우뚝서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은 바로 이런 여성들의 열망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처참한 전쟁이 벌어졌던 이 잔인한 6월에,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앓고 있는 이 반쪽의 땅에서,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을 열게 된 것은 <전쟁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꿔내겠다는 여성들의 강인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평화운동가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에서 오신 젤마 하지할릴로빅씨, 동티모르에서 오신 이네스 알메이다씨, 남아공의 엘렌 음베레씨, 옛 동독에서 오신 타챠나 안스바하 변호사님, 미국 윌프에서 오신 베티 벌스 회장님 그리고 이번 모임을 후원해주신 미국친우봉사위원회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노력하고 계신 한국대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디 이번 모임에서 여러분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이땅에 그리고 분쟁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에 화해와 평화의 계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통일 한반도에서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긴장과 대결, 증오와 배척의 시대가 물러가고 정의와 사랑, 협동과 포용, 존중과 배려가 열매 맺는 평화의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pening Remarks

Lee Woo-jung

Representative of Women Making Peace

For Koreans June is a tragic month. The Korean War broke out on June 25 1950 and left an irreparable scar to all Koreans ; six million died and wounded, three million floated as refugees and ten million became separated families. The land and people was totally devastated by the War in which more bombs were dropped than the quantity used in Europ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Korean War ended with an armistice, and the division into two Koreas is continuing until today. Arms race, mutual distrust and hatred have piled up along the DMZ, while no communication, mailing, nor visits were allowed to the divided families.

The division of Korea institutionalized itself within two political systems, built upon massive sacrifice of the people. Confronting the communist North became a justification for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South. Under the banner of national security human rights were violated. Military spending took away the resources for social welfare. The American Forces stationed in the South demanded not only financial support for their maintenance, but also silence of South Koreans on violence and sexual abuses committed by American soldiers.

Moreover, a possibility of a military clash is always haunt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Cold War is said to have perished from the globe, but it did not alleviate military tension and arms build-ups in this region. Today we Koreans live in a most inhumane situation; half of a divided nation is starving but no food can cross over the 38th parallel.

Entering a new millenium we dream of a new world, a world where there is no tears, no sighs, a world of peace and reconciliation, and a world in which women, the half of the heaven, are recognized as an equal subject of the world. And the Conference beginning today will lay a stepping stone to realize such dreams of women. In a tragic month of June, in a divided land, we hold this Conference to show how much we want to change the history of war to the history of peace.

Today we have invited friends from countries which have gone through or are going through

national conflicts and social turmoil. I sincerely welcome Selma Hadzihalilovic from former Yugoslavia, Ines Almeida from East Timor, Tatjiana Ansbach from former East Germany, Betty Burks from WILPF, and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which provided funding for this Conference. I also welcome my Korean colleagues who have devoted their life for the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I hope today's meeting could be a wonderful opportunity to put together all our historical experiences and wisdom to open a new era of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global community. In the coming twenty first century, thus, words such as tension, confrontation, hatred, and exclusion will all go away, and we will have a new world of justice, love, cooperation, tolerance, respect and care for each other.

Thank you very much.

21세기 세계 평화와 여성

이효재(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준비위원장)

1. 들어가는 말

분단된 한반도 서울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여성들이 이번 이 국제 모임을 갖는 것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의의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보스니라-헤르체코비나, 독일, 동티모르,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WILPF 등 그 동안 우리 민족이 경험한 바와 같은 전쟁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 고통 당하며 투쟁해 오신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모색하며 논의한다는 것은 주최측으로서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제2차 대전에서의 일본 제국의 패배로 1945년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으나 동시에 미·소 강대국에 의해 분할 점령당하였습니다. 점령당한 민족으로서 미·소냉전의 상반된 이데올로기와 대립 속에서 1950년 민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렀으며 그 결과 1953년부터 국토 분단과 민족분열로서 분단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과정에서 이 국토는 남북간에 초토화되었으며 수백만의 동족살상과 1천만의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 피해는 역사 속에서 1천5백년간의 동질적문화공동체를 형성해 온 한 민족이 분열되어 적대시하고 불신하면서 살아온 이 상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극복하기 어려운 민족적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6.25전쟁은 1953년 가까스로 정전협정으로 중단되었으나 20세기가 끝나 가는 지금까지도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45년간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전쟁 역사에서 45년간 긴 휴전 상태가 계속된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분단상태는 앞으로도 몇 해가 계속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갈등과 적대관계는 지금도 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로서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족 역사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서 이번 이러한 국제회의를 준비하며 비슷한 갈등과 전쟁의 경험 속에서 살아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의 피해당한 삶과 경험을 나누며 평화를 위한 공동 관심과 연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 점을 참으로 중요하고 보람있는 기회인 줄 압니다.

그 동안 우리의 일상적인 불안한 삶에 매몰되어 세계 각 지역에서 자행되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참담한 파괴와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어 가는 소식 그리고 화해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뉴스로서 가끔 접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아픔과 고난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없는데서 먼 나라의 남의 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서울까지 오셔서 이 회의에 참석하심에 따라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고통과 희망이 세계를 한

가족처럼 아우르는 듯한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저로서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여성이 진정으로 바라며 이룩해야 하는 평화는 어떤 것이며 이 평화를 위해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의 제한된 견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듣고 나눔으로써 이 국제 모임이 풍부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2. 본론

(1) 여성이 바라는 평화

평화는 인간에게 있어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명의 보존과 진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 유엔에서는 "인류의 평화에 관한 권리 선언"까지 선포한 것인 줄 압니다.(1984년 11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이 선언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평화는 인류역사와 사회에서 계속 위협 당하며 이제는 핵무기의 위협하래 작고 큰 전쟁이 각 지역에서 점철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확립과 가부장제적 국가 권력에 지배당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전쟁의 피해자로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미소간의 대립상태로 유지된 냉전시대는 끝났지만 인종적, 종교적 갈등이 심각한 분쟁요인으로 대두되어 정치적, 군사적 분쟁이 잔혹한 살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은 핵의 위협 아래 정보화 시대를 급속하게 발전시켰으며 자본의 세계화와 함께 세계를 가진 자와 못가진자로 양극화시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배는 초국가적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로서 더욱 독점화 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로서 인간관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본의 횡포와 상업주의는 인간의 성생활을 왜곡하며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억압은 가정과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며 세계화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인신매매는 그 대상의 연령층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여성에 이르기까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왜곡되고 비인간적인 사고는 이제 가족관계에까지 침투되어 부부간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관계에 이르기까지 강간이 자행되며, 인격과 생명을 짓밟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돈과 폭력이 사회를 지배하는데서 여성의 성과 노동을 폭력으로 착취하고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생명관으로 여아를 종교적 목적으로나 가부장제 문화관습에서 살해하는 일이 현대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가장 일반적으로 생명의 위협과 삶의 터전을 상실 당하는 것입니다. 즉 남녀간에 가족을 잃고 분산 당하며 집과 농토를 빼앗기거나 파괴당하는데서 생존이 위협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겠습니까? 여성에게 있어서는 성과 노동이 전쟁에서 이긴 강자들의 정복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리품으로 약탈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한국역사속에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로서 정신대로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바로 어린 여성들이 군인들의 성노예로 그리고 군수산업을 위한 노동노예로 강탈당한 것입니다. 일제는 또한 성노예화로 여성의 재생산능력을 파괴하여 민족말살을 꾀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온 세계가 가공할 만한 전쟁에서 당한 여성 피해를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여성의 집단 강간이 전쟁의 단순한 피해가 아닌 전쟁의 전략과 수단으로 자행된 것이라 합니다. 집단 강간이 적대시하는 종족을 말살하려는 수단인 동시에 그 종족을 내쫓고 영토를 확장하고 지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과 강간의 위협이 적을 자기들 땅에서 몰아내고 추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강간을 통해 종족을 정화하려고 임신을 강요한 비인간적인 범죄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성지배의 권력을 여성의 성과 재생산능력을 전쟁의 전략으로나 정복의 수단으로 삼는데서 비인간적 잔학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의 피해자로 가부장제의 노예로 머물 수 없습니다. 잘못된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와 역사를 바로잡고 파괴적인 권력에 대응하여 자연과 인간 생명을 살리며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며 민주와 복지를 실현하는 인간공동체의 역사발전에 주체자로서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여성들은 여성의 인권, 생명보전, 환경,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에 주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여성들의 자각은 평화에 대한 이해와 요구에서 남성들과 차이 있는 더욱 인간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이제 남성들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인식하는 평화의 개념은 여성들의 체험과 요구에 의해 더욱 보완되고 진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평화는 폭력적인 억압 구조를 변혁하는 것

평화의 개념은 그 동안 단계적으로 진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WILPF 부회장 Regina Birchen의 The Evalution of a Concept of Peace) 정치적으로나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해 온 평화의 개념은 국가 민족간에나 국가 내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즉 무력에 의한 싸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군사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는 모든 다른 개념의 평화를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평화의 의미는 무력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및 기술적인 요인간의 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유지가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결과적으로는 국가간의 핵전쟁을 예방한다는 명분에서 핵무기의 균형유지를 위한 핵기술개발을 정당화해 온 것입니다.

위의 이러한 평화개념은 Galtung에 의해 소극적 평화를 의미한다고 지적되었으며 그는 이에 반하여 적극적인 평화개념으로 억압적이며 폭력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혁을 제시하였습니다. 불평등하고 불의한 사회경제구조로서 기본적이며 필요한 의식의 조건과 건강한 자연환경 및 의료보건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것을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

에 의한 인명 살상과 피해는 무력에 의한 전쟁이 못지 않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성폭력으로 피해 당하며 억압당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간 또는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덧붙여 일상적으로 가족 및 부부관계 즉 개인적인 사생활의 차원에서 당하는 폭력까지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및 국가간의 평화는 바로 가정에서 폭력이 없어지고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차별과 억압이 없는 참여와 대화가 사회질서로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나 국가관계에서 대화가 단절됨으로서 폭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란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관계에서 인간이 파괴와 오염을 피하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존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독점하고 파괴하는 상태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으며 자연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총체적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외적 조건이나 제도적 개혁만을 구비하는 것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정신적.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의식과 인격을 갖추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 위한 평화문화를 창조하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의 세계화는 우리의 이러한 실천을 이제 개인적, 지역적 삶의 범위와 차원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합니다. 경제성장과 개발정책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서 세계를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시키며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자력과 핵무기의 파괴적 위력은 전 지구와 인류를 파멸할 정도임으로 평화를 만드는 우리들의 실천운동은 국제적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국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르는 폭력과 파괴적 위험에 관심을 가지며 정보를 교환하여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함께 대응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최된 이러한 국제모임은 여성들의 평화운동을 국제적으로 연대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분쟁과 전쟁으로 직접 피해 당한 지역의 여성들로서 이렇게 평화운동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3) 평화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 실현

그 동안 흔히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온 평화운동은 핵무기 경쟁이나 핵무기 실험에 대한 반대, 군축을 위한 국방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시위에 치중해 왔습니다. 즉 소극적 평화에 치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평화적 요구를 알리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시적 효과가 있지만 일상적이지 못한데서 실제로 미치는 압력과 영향에는 무력함을 나타낼 뿐입니다.

앞서 지적 한데로 평화를 더욱 근본적이며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총체적으로 문제삼는 입장에서는 전쟁과 평화를 시대적 문화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평화는 행위 양식인데서 유네스코의 "야무스크로" 선언 (유네스코 회의가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명)은 평화를 생명, 자유, 정의, 연대, 관용, 인권 및 남녀평등 등을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평화문화를 개발함으로써 평화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구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선언에 의하면 평화의 문화는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이며 갈등적인 문화적 요소를 인류의 공동노력을 통해 제거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는 전쟁문화와 달리 평화문화는 공유, 숙고, 대화, 참여와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평화문화는 "대화의 문화"인 것이다. (P. 18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이러한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대화를 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적 전통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각 문화권이 지녀 온 갈등을 유발하는 전통문화의 기반을 파악하여 그 전통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약화시키며 극복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해할 때 대화와 참여를 조장하는 민주주의 실현이 평화문화의 전제조건이며 문화를 창출하는 수단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권위주의적이며 차별적인 위계질서를 극복하고 성차별적인 가부장제의 문화전통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와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중앙집권적인 군사문화와 권력의 집중화를 분산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지방자치의 정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따라서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포함한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와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민주주의의 문화질서를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3. 결론

우리 여성들은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적임자로 생각됩니다. 여성은 역사적으로 모성 역할을 담당해온데서 공동체적 화해와 평화를 주관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발휘해 왔습니다. 여성은 몸소 생명을 잉태하여 태아에부터 생명을 보전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건강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장애자들을 가족적으로 돌보고 부양하는 모성역할을 담당해 온데서 화해와 사랑의 능력과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능력과 역할은 오늘날 동족간의 적대관계를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화해의 중재자 노릇을 가능케 합니다.

사실상 과거 남북여성들의 만남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군사적 타산이나 정치권력간의 타산이 있을 수 없는데서 화기애애하게 만날 수 있었으며 한 동족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어머님의 마음가짐으로 식량 돕기에 앞장서며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세대들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대화의 문화를 자리잡게 하매 이북 동족을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만나 대화할 수 있게 젊은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민주화, 지역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서 화해의 문화, 대화의 문화를 우리는 일구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Women and World Peace in the Twenty First Century

Lee Hyo-je
Chairpers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Women and Peace

1. Introduction

To ho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ace in Seoul, a capital city of a divided country, is meaningful in many ways. As a membe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I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from Bosnia-Herzekovina, Germany, East Timor, and South Africa, who share similar experience with Koreans. We have suffered from war and violence, but I believe at the same time we have fought against it. I feel very proud to have you here to exchange our experience and wisdom on the role of women for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of the world.

Korea was emancipated from Japanese colonialism with the defeat of Japan in the Second World War. The emancipation, however, was not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nd unified nation, but by the occupation of Russians in the North and Americans in the South. Cold War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as intensified among Koreans as well, which led to a fratricidal war in 1950. The Korean War ended not only with a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with a national separation.

The war devastated the land without discriminating the North and the South. The war took away the life of millions of people, leaving behind one million separated families. The Korean people, who have lived together forming one national community for more than 1,500 years, came to hate and distrust each other. This scar would not be easy to overcom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Korean War ended with an armistice, not a peace treaty, in 1953. Thus Koreans have lived for forty five years and are still living in a quasi-war situation. The continuation of the armistice treaty

for more than forty five years is very unusual in human history. And further we do not know when it will be substituted with a peace agreement.

This tension and confrontation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oes not only affect the life of the Korean people but also threatens the peace of the region and the world. This is why we Koreans have desired peace more than any other people. Therefore I believe today's meeting and discussion will b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all of us to share our experience of war and national conflicts, our suffering and struggle, and out efforts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It is true though, Koreans, obsessed by their own harsh reality, have been less interested in the suffering of other nations. But it is also true that we felt shame and guilty for not being able to help the people in other countries, hearing from the media about the pains and suffering of,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oday I am more excited for having the guests from abroad to share our pains and hopes to make a new world of peace.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peace we want to achieve and the role of women to realize peace in our society and the global community. I hope the content of my presentation could be enriched by your active participation, insightful comments and discussion.

2. Women and Peace in the Twenty First Century

2-1. Peace from Women's Perspective

Peace is the basic condition for humans to live. Peace is a premier premise to enable the existence of human race, the maintenance and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s. That is why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the Declaration on the Peace of Humanity in November 1984. In reality, however, peace has always been threatened by humans themselves. Wars and conflicts have not ceased from the globe, and the nuclear threats have made the situation worse.

Women have suffered as victims of war throughout the history of men-centered patriarchical society and state structure. Despite the demise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blocs,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have not disappeared but were rather substituted with the

emergence of ethnic and religious clashes.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advanced sciences fastened the coming of the information age and the globalization of market forces, but at the same time brought about widened gap between the haves and not-haves. Unfettered movement of capital and reckless pursuit of profit by transnational corporations are worsening the vicious cycle of the rich and the poor, further threatening the peace in human relations.

Violence of capital and commercialism has distorted sexual life of humans as well. Sexual abuses and oppression against women are becoming a serious problem not only in a family or a society but also in a global community. Sexual violence and "human sales" are not discriminating young children and the aged. Distorted sex culture has also affected the family life. Violence is taking place among married couples, against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and even against children. People are killed and human dignity is lost in this era of violence.

In a society governed by money and violence both sex and labor of women become the target of exploitation. Its extreme case is found in the killing of female fetus or babies in the name of religious or patriarchical objectives.

Furthermore, war and conflicts threaten the life of people and take away their ordinary livelihood. People lose their beloved; families are separated; and their homes, work places are destroyed. Their survival itself, therefore, is at risk. War does not end there however. Women's sex and labor become the booty of the winners of the war. The clearest example is the so called "Korean comfort women." Under brutal Japanese colonial rule, young Korean women were drafted by the Japanese military for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r in the Japanese defense industry. By this comfort women system the Japanese imperialists even aimed to destroy the reproduction ability of the Korean nation.

Another threatening instance is found in the Bosnian-Herzecovinian experience. Rape against women was not just an incidental accident during the war, but was carried out systematically to serve the war objective of ethnic cleansing and territorial occupation. Sexual violence and rape was a strategy to expel enemies from one side's land and to "purify" the blood of another ethnic group.

Such instances clearly show the extreme of inhumanity and cruelty of men-centered power structure. However, women have not remained as victims of war or slaves of patriarchical system. We have stood up and fought against such distorted social order and history. We have challenged the

state power based on the value of destruction. We have claimed to be the subject of a new social order and a new human community. Women in the world have struggl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of life,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tical equality and freedom. Enlightened women, moreover, have demanded a more humane approach to peace. Peace is not any more the agenda monopolized by men. The concept of peace understood by men should be supplemented and further developed by women's experience and wisdom.

2-2. Peace to Reform the Structure of Violence and Oppression

The concept of peace has also changed and developed over the years (Regina Birchen, vice president of WILPF, "Evaluation of a Concept of Peace"). Peace in general is understood as a situation without war between states or within a state. In other words, peace means a situation with no physical clashes. This was peace viewed from the political and military perspective. Another definition of peace came to emerge, extending its scope to the dynamic balance of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technological factors. But this concept that the balance of power would deter the breakout of war became the justif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under the name of deterrence strategy.

Galtung has criticized such concept to be passive approach to peace, and suggested an active concept of peace by including the reform of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violence and oppression. He maintained that it must be called structural violence when basic needs of humans, such as environmental safety, health and security, are under a constant threat. And he chased the roots of this to the unequal and unjust structure of society. Lost of life and damages on humans by such structural violence, he believed,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violence of war.

In addition to structural violence, day-to-day violence in family and marriage life i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especially to women. Peace in society and among states can only be realized when violence disappears from family life, and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perish away from human relations. For this participation and dialogue is critical because violence emerges when there is no communication among conflicting parties.

Genuine peace includes peaceful coexistence of human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without

one-sided destruction and contamination. As long as human beings regard the nature as the object to be exploited and developed for human needs, comprehensive peace cannot exist in the globe. To realize all this, appropriate physic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reforms cannot be sufficient. We humans ourselves should exert efforts to reform ourselves first, our perceptions and behaviors.

Therefore we have to develop a culture of peace. And the internationalized capital does not let us pursue this within national or regional boundaries. Economic developments are taking place in all over the world, polarizing the world population into the rich and the poor on the one hand, and recklessly destroying the ecosystem of the globe on the other hand. Nuclear technology for both commercial and military use threatens the existence of the human race itself.

It is this reason why our actions for peace call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more than ever. We should always keep our eyes open to the incidences of violence, exchange information and take actions together. Today's Conference, too, was organized in this regard. It is more meaningful because women from countries of war and conflicts have gathered here to find an international strategy for peace movement.

2-3. Democracy, the Foundation for Peace

Peace movement has mostly focused on opposing nuclear tests and nuclear arsenal, while demanding disarmament and reduction of defense spending. I think this was a kind of passive peace campaign. Such actions might have caught the interests of ordinary people for a moment, but lacked continuity and had little effect in actually reduc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violence.

As mentioned above, we need to take a more active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peace movement. War and peace are the products of the structural culture of the history we are living in. The Yamuscuro Declaration of the UNESCO has suggested a culture of peace based on values such as life, freedom, justice, solidarity, tolerance,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this Declaration, the culture of peace is based "on the belief that human race is able to root out cultural factors of authoritarian, hierarchical and conflictual human relations through common efforts. In contrast to the culture of war which depends on violence to resolve any conflict, the culture of peace recognizes the value of sharing, contemplation, dialogue and participation, and the human existence with equal rights and dignity." The culture of peace, thus, is a culture of dialogue (UNESCO-Korea

Committee, International Declaration for Peace. p.18).

For the creation of this new culture, the first step is to break down the cultural tradition that hinders communication. In every civilization and culture, if there is an element that disturbs dialogue among different groups we have to rid of that barrier, and substitute with a new culture of sharing.

When we approach peace from such cultural perspective we can easily understand why democracy, which involves participation and dialogue, becomes the critical premise for the culture of peace. Democratization breaks down authoritarian and hierarchical social order, and weakens the ground of patriarchical tradition. Democratic consolidation diffuses centralized state power and introduces local autonomy in which th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becomes critical for its function. Democracy brings together more liberalized industrial relations and better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economic performance with improved welfare system.

3. Conclusion

I believe it is women who are able to make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omen as mothers have the inherent ability to bring communitarian values, reconciliation and peace in human relationships. Women conceive a new life in the womb, give birth to the life and raise it. Throughout human history women have taken care of the aged and the handicapped. We have been the subject of creating the culture of tolerence and love. This is why Korean women can effectively play the role of mediator to bring the divided nation into one.

As proved in the past exchange meeting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political and military calculation did not exist in the mind of women. South Korean women have been the first to launch the food aid campaign in the family, local and national level. Through dialogue with our children and neighborhood we have persuaded the urgent need to help the starving North Koreans.. Therefore, it will be women's role to root down democracy in family life and in local communities, and to lead the new culture of reconciliation and dialogue.

Thank you very much.

참가국 보고

CONTRY REPORT

Frame of the speech

Selma Hadzihalilovic

▣1992 : The independence of Bosnia & Herzegovina, and the aggression
▣first raped women and the " FETWA" from the Islamic Community
▣first women's groups in 1992/93-support of the community-abuse of traumatized women media (manipulation)
▣violence of human rights-concentration camps-camps for raping " public houses for war. "Vilina Vlas" Visegrad, primary school Vlasenica, " Sonja" Vogosca, " Keraterm" Omarska
▣1993 : aggression of Croatia on Bosnia & Herzegovina-total siege
▣new camps for raping ("Heliodrom" Mostar, Busovaca, Ahmici)
▣women's lobbying-international lobbying (Bosnia & Herzegovina, Croatia, Serbia Eu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rape is an crime against humanity
▣war crimes
▣women's conferences-centers for women war victims-lobbying
▣1994 new presentation of the situation in Bosnia & Herzegovina and crimes against women the international level
▣women's network-women are the best ambassadors and peace makers
▣1995-fiasco of the United Nations-Srebrenica and Zepa-statements of women
▣new massacres
▣1995-Daton Peace Agreement-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forced the Bosnia & Herzegovina
▣International War Tribunals at the Hague
▣1996 Women's conferences and first election after the war
▣1997 women conferences-dialog-preparation for the local election

*the importance of the women'snetwork between women's groups from BH, Croatia and Macedonia
*joint lobbying in different societies
*women's political engagement-demonstration, letters, books, articles, public presentation

티모르 여성 : 모든 난관에 대항한 투쟁

Ines Almeida

여러 자매, 친우 여러분

우선 이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을 조직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포럼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투쟁을 하다 생명을 잃어 갔으며 하루하루 직면한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계속 해 나가는 티모르 여성들에게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배경 설명

동티모르는 피지섬 크기 만한 작은 섬으로 그 수도는 딜리입니다. 동티모르는 면적 11,925 ㎢에 인구는 약 737,000명입니다.(1990년 추정치) 동티모르는 대략 호주의 북서해안과 인도네시아의 사이에 위치한 서태평양 국가입니다.

동티모르는 400여년 이상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74년 4월 포르투갈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살라자 파쇼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정권의 최우선 정책은 U.N.의 탈식민지화 계획에 따라 모든 식민지에 독립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티모르는 모잠비크, 앙골라, 기니비사우, 카보 베르데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탈식민지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당이 창설되고 티모르인들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미래를 선택하는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티모르여성

티모르여성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못 했습니다. 티모르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수세기에 걸친 포르투갈의 식민지 통치 결과 포르투갈의 문화도 접목되었습니다. 여성은 15세의 나이에 결혼하도록 사회적으로 요구되기도 하고 중매결혼도 이러한 전통의 한 부분입니다. 여성은 모든 가사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청소, 세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사일을 전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여성들은 식량조달을 위하여 논이나 옥수수밭에서 일해야 합니다.

1974년 4월 포르투갈에서 카네이션 혁명이 있은 뒤 티모르여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여성에 관한 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침략과 강점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18개월 만인 1975년 12월 인도네시아 무장부대가 수도 딜리부터 시작해서 동티모르에 대한 전면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침략이 자행되자 동티모르인에 대한 잔학행위 - 수도 딜리에서의 무차별 살상, 강간, 약탈, 건물 방화 등- 가 자행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살인 행위와 수천 명의 동티모르인들이 행방불명되는 등 모든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고문, 기근, 전염병이 동티모르 전역을 휩싸 버렸습니다.

이 잔인한 침략으로 동티모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00, 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동티모르인들은 계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체포, 실종, 강간에 대한 두려움과 과연 내일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잇습니다.

약 2만 명의 인도네시아군이 동티모르에 주둔해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동티모르해방국민무장군(FALINTIL : the National Armed Forces for Liberation of East Timor)에 맞서 무장공격을 감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티모르인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동티모르 시민들이 오늘날까지 FALINTIL이 투쟁을 계속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잇습니다.

고문, 실종, 강간, 성폭력, 무차별 학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투옥되는 일 등은 동티모르인이라면 누구나 매일 겪는 일이 되었습니다. UN 특별조사단이 인도네시아 군부가 동티모르인에게 자행한 범죄 행위에 관해 보고했으나 세계의 강국들은 이러한 인류에 반하는 잔학 행위를 못 본척 하고 잇는 것 같습니다.

투쟁

티모르인이 생존할 수 잇는 유일한 길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모든 난관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불법적, 야만적인 강점에 대한 저항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 문화, 종교, 사회, 교육, 정치, 무장투쟁 -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우베레 저항국민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Maubere Resistence)와 Xanana Gusmao의 지도 아래 티모르인들은 이 불법적, 야만적 강점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투쟁은 세 가지 전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무장투쟁(FALINTIL), 비밀전선(지하조직)과 1996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Jose Ramos- Horta가 이끄는 외교전선입니다.

티모르여성의 역할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가족 내에서 여성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남성과 평등하게 대접을 받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과 국가, 특히 여성의 권리와 정치에 관한 견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커녕 표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운동가의 활동, 티모르여성들의 다방면에서의 독립쟁취운동, 교육수준향상, 국내외정치, 특히 동티모르의 저항운동에 관한 정보입수 등이 외세 강점에 저항해 온 지난 21년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독립 투쟁에서의 티모르여인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소요사태, 남성에 자행된 고문과 실종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이 독립투쟁을 위한 중요한 활동을 하는 각종 지하단체의 핵심인물로 등장하고 잇습니다. 국제적으로 티모르여성들이 더욱 활발한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독립투쟁에도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티모르여성들의 지하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이유로 인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릴 수 있는 점은 우리 여성의 역할이 과거에도 매우 적절하지만 어려운 것이었으며 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구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띨 것이라는 점입니다.

티모르여성이 인도네시아의 불법점령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지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하조직 혹은 무장투쟁에 가담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여성이 가장 괴로움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이는 동티모르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강점 하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제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점령과 같은 과거 강점 당하던 시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강간, 성폭행, 무차별구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간, 무차별 구금, 실종은 동티모르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시, 기록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결사조직 덕분에 지난 수년에 걸쳐 잔학행위에 대한 문헌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그 사례를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간략한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주에 정치망명을 요청한 한 난민여성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하루의 일과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밤낮 아무때나 찾아와 성행위를 강요한다. 다른 경우에는 내 집 주위를 맴 돌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내가 마치 죄수인양 느끼게 한다. 나는 계속 성폭행을 당했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 했다."

여성과 군인의 보복

많은 경우에 독립운동에 가담한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자신의 앞에서 강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예 중 하나가 Lucas Batista라는 티모르 남성의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인도네시아군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는 자신을 강간한 군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오늘날까지 자행

되고 있으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호주에 소재하고 있는 동티모르 인권센터(East- Timor Human Rights Centre : ETHRC)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3세의 Aliance Soares dos Santos 양은 동티모르의 서부지역인 보보나로 지역의 아차베라는 마을에서 10명 이상의 군인들에 의해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동티모르 독립무장단체(the armed East Timorese Resistance : FALINTIL) 요원들을 리카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는 비난을 듣고 은신해 있던 중이었습니다. 체포된 뒤 Alianca는 끈으로 묶이고 칼로 위협을 받으면서 현재 동티모르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군부의 한 조직인 KORAMIL(준 군사령부)에 끌려 갔습니다. Alianca는 14일 동안 구금되었는데 고문과 인도네시아 군인의 강간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 군인은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그녀는 자신이 당한 고문 중 한가지를 Supardi라는 이름으로 밝혔습니다. Alianca는 룰리레마에 있는 라자왈리 군초소로 옮겨졌고 하사관에게 강간을 두 번 당했습니다. 밤에 군인들은 그녀 주위에서 잠을 잤으며 그녀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군인들의 모든 명령과 물을 끓이는 등의 잔일을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Alianca는 12월 16일 석방되었습니다.

위안부 (현지 아내)

다음은 티모르여성이 부패하고 독재적인 군사정권의 위안부로 이용되었던 예들입니다. 위안부는 인도네시아군이 자행한 성폭력 중 만연해 있는 또 하나의 형태의 성폭력입니다. 티모르여성을 위안부로 삼는 행위는 또한 '현지 아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의 예는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더욱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Odilia라는 티모르여성은 자신의 여동생의 비극적인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면진술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침공하던 당시 Odilia의 여동생은 결혼해서 임신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숲속으로 피신중이었고 그녀는 딜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그녀를 끌고 가 거의 1년동안 그녀를 성의 노리개로 이용했습니다. 그녀 외에도 다른 세 명의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 갔습니다. Odilia의 여동생은 남편이 숲에서 돌아오자 마침내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그녀가 인도네시아군에게 몸을 팔았다고 비난했고 그후 남편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가족들은 강간의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가 돼야만 했던 여성들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 희생자들은 매춘부로 전락하거나 자신과 아이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안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두 번 희생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들은 동티모르를 강점한 인도네시아군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해야 했던 충격과 치욕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사회의 희생자가 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비극을 털어놓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그 범죄를 자행한 자들도 이 사회가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티모르에는 여성을 위한 난민수용소가 없습니다. 또한 강간을 당한 희생자나 위안부를 위한 사회복귀센터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가족 계획인가 아니면 대학살인가

인도네시아는 범국민적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티모르에 이 제도가 도입되자 티모르여성에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카톨릭교회는 교리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인도네시아 군부는 적절한 정보,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동의 없이 가족계획정책을 티모르여성에게 강요하고 잇습니다. 다음은 Bella Galhoe라는 티모르여성의 이야기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인도네시아군부는 모든 고등학교에 찾아가 강제 가족계획을 실시할 어린 소녀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사를 주입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주사를 주입했는지 모르고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방문 한 뒤 인도네시아군인들은 각 마을과 집들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여성마다 주사를 주입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주사를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세 번이나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Bella는 80%의 동티모르 여성들이 강제가족계획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98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95,000명의 동티모르 여성에게 실시할 가족계획 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

우리 여성운동가로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일이야말로 커다란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으며 이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들이 보호받고 지원 받으며 범법자들은 마땅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티모르가 많은 강대국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외세의 강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힘겨운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강대국들은 티모르인을 살상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인도네시아에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는 연대운동, 특히 국제여성단체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독재군사정권에 혐오감을 느낀 젊은이와 학생단체 사이에서의 운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UN 특별 감사단이건 독자적인 NGO이건간에 동티모르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동티모르여성의 기본적권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 UN인권위원회 산하 고문에 관한 특별감시단은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군이 자행한 여성에 대한 잔학 행위, 성폭행, 강간에 관해 티모르여성의 자문을 얻어야 된다.
- 각국 정부 및 NGO는 자결과 독립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티모르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예를 들면 여성을 위한 기술적, 물질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
- 국제 단체는 동티모르의 성차별문제를 주로 다루기를 촉구한다.(예 : 직업과 교육에서의 차별

,가정폭력, 자녀와 남편의 실종)
- 동티모르에서의 인도네시아 군부의 잔학행위와 강제가족계획 실시를 중단하라.
- 인도네시아에서 동티모르로의 매춘 도입을 중단하라.
- 유능한 국제기관에 의한 무료 에이즈 교육과 테스트를 실시하라.

단기대책

비정부기구(NGO)로서 동티모르구호협회(East Timor Relief Association)는 다른 NGO와 연대하여 동티모르 여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수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당해 온 티모르 여성을 위해 티모르인이 운영하는 센터를 설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잇습니다. 천주교 수녀들이 더 나은 직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동부에 위치한 베니라레에서는 Marlens 수녀가 젊은 여성을 위한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 18- 20세의 약 150명의 학생들이 타자기 치는 법, 컴퓨터 사용법, 요리법, 봉재술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 훈련을 통해 젊은 여성들은 병원, 호텔, 항공사, 식당 및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잡지 The Age, 1996년 12월 6일자)

또 다른 젊은 여성을 위한 학교는 수도 딜리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Lourdes 수녀가 운영하고 있으며 17명의 여성들이 직업을 찾기 위한 기술과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조성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재정적 지원을 바랍니다.

평화협상

CNRM은 동티모르에서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시도로 3단계 평화안을 제안했습니다.

① 1단계(1- 2년)

동티모르에서 무장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UN 사무총장의 주재 하에 동티모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협상 개최
- 정치범 석방
- 인도네시아군 감축
- 병기 철수
- 국제적십자활동 강화
- 인도네시아 공무원수 감축
- 환경보호 및 복구, 재개발, 지역개발, 야성과 아동 보호, 공중보건 및 면역 강화, 모든 인권 복구, 포루투갈어와 테템어에 대한 규제 철폐 등에 관하여 UN 특별기구가 조사

- UN 사무총장과 동티모르의 주민대표가 임명한 독자적 인권위원회 설치

② 2단계 - 자치 (5년)

이 단계는 동티모르인들이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스스로 각 기관을 다스릴 자치로 가는 과도기임.
이 단계에서는 UN의 감독과 원조 하에 5년 내에 민주주의 의회 총선 실시
- 동티모르인에게만 참정권이 있고 동티모르인만 선출될 수 있음.
- 의회가 5년 임기의 동티모르 총독선출
- 의회는 국제무역관계, 투자, 재산, 이민, 기타에 관한 입법권을 가짐.
- 인도네시아군 철수와 인도네시아 공무원 감축
- UN이 조직한 영토 문제 담당 경찰이 총독의 관할 하에 설치, 동티모르에는 모든 군인 철수

제 2단계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상호 합의하에 연장될 수 있다.

③ 3단계- 자결

3단계의 1년 내에 자결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동티모르인들은 자유연합체, 인도네시아로 합병 또는 독립 중 하나를 선택한다.

Timorese Women: Visibility against all Odds

by Ines Almeida

Sisters, friends

First of all, allow me to thank the organisers of this Women Symposium. It is indeed a great honour for me to address this important forum.

Allow me also, to pay tribute to my fellow Timorese sisters who have lost their lives, and those who continue to fight in spite of enormous difficulties they have to face on a daily basis.

Brief background

East Timor is a small island, with the size of Fiji. The capital is Dili, East Timor population was (estimate of 1990) about 737,000, with a total area of 11,925 square kilometers. It lies in western Pacific, approximately between north west coast of Australia and Indonesia.

East Timor was ruled by Portugal for more than 300 years. In April 1974, a revolution took place in Portugal. The fascist regime of Salazar wars overthrown and a new and democratic government was formed. One of its priorities was to grant independence to all colonie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decolonisation program. As a result, East Timor - like Mozambique, Angola, Guine Rippou, Gabo Verde and S. Teme Principe - started a process of decolonisation to achieve independence. Political parties were formed and the decolonisation process was aimed at allowing the Timoreses to vote to choose its own future a democratic process.

The Timorese woman

A life of Timorese woman has never been easy. We had our traditional ways but also a mix with Portuguese culture due to centuries of Portuguese colonial rule. Often a woman is expected to marry at the age of 15. Arranged marriage is part of the tradition. A woman Is expected to do all the daily chores in the house. Cleaning, washing, as well as making babies and looking after the babies. On

top of this, women often are also expected to work in the rice and corn field for food supply.

Since April 1974 Carnation Revolution in Portugal, it was expected that a new era may begin for the Timorese women. But no much change has taken place, at least, no improvement as far as conditions of women are concerned.

Indonesian invasion and occupation

On 7th December 1975, after only eighteen months of decolonisation process, Indonesian armed forces mounted a full scale invasion on East Timor, starting right in the capital, Dili. The invasion was followed by brutal mistreat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 indiscriminate killings and rapes in the streets of Dili, looting, and buildings sacked and burned. All basic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systematic killings and disappearances of thousands of Timores began in East Timor. Torture, famine, uncontrollable diseases spread through out East Timor.

This brutal invasion and occupation has caused the deaths of more than 200,000 Timorese - that is about one third of its total population.

Until today, the people of East Timor have been living under constant fear. Fear of arrests and disappearance, fear of rape, fear of not knowing whether they would survive the next day.

It is estimated that 20,000 Indonesian troops are stationed in East Timor. These troops are there, not only to mount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he National Armed Forces for Liberation of East Timor (FALINTIL) but also to control the civilian population. The Indonesian military knows too well that the civilian population is the force that provides all the necessary support for FALINTIL to continue to fight until today.

Torture, disappearances, rape, sexual assaults, arbitrary killings, imprisonment without trials, are part of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of East Timor. Special Rapporteurs from the UN have extensively reported thes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 people of East Timor by the Indonesian military, but the world's powerful countries seem to prefer to turn a blind eye to these atrocities against the humanity.

Resistance

The only way for the Timorese people to survive is to resist at all costs and against all odds. And this resistance against this illegal and barbaric occupation continues until today, and in every front -

cultural, religious, social, educational, political and armed struggle as well.

Under the umbrella organisation, the National Council of Maubere Resistance (CNRM) and the national leader Xanana Gusmao, the Timorese people and nation are still resisting this illegal and barbaric occupation.

Presently, our struggle are fought in three main fronts: the armed struggle (FALINTIL), the Clandestine Front (underground network and leadership) and the Diplomatic Front, headed by th co-winner of the 1996 Nobel Peace Prize Mr. Jose Ramos-Horta.

The role of the Timorese women

Traditionally, a woman has been taught to perceive herself as of inferior value in comparison to man. Within the family, their opinions were never asked or valued on equal basis as that of the opposite sex. So many don't usually express their views or opinions on issues affecting them or the nation, specially regarding women's rights and politics. Let alone being active in political fields

This tradition has gradually been changed, Work done by women activists, roles played by Timorese women in many aspects of the struggle for liberation, increase level of education, more access to information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specially regarding the Timorese resistance, has helped inject positive change, especially during the last 21 years of our resistance against foreign occupation.

The role of the Timorese women in the struggle has been continues to be crucial. With the intensity of unrest, torture and disappearances of the male activists, women enters into the core group of the underground movement to activate crucial activities for the progress of the struggle as a whole. Internationally, Timorese women not only become more visible but also showing continuous dedication to the work of the struggle for the liberation of our homeland.

As for the role of the Timorese women in the underground movement, for obvious reasons, I cannot enter into detailed account of how this facet of our struggle evolves. I can assure you, however, that the role of women in this critically important front has been relevant yet extremely difficult, and has continuously becoming more and more relevant as the struggle evolves.

The suffering of the Timorese women under this illegal occupation does not depend only on our activism. Because even not working within the underground movement or the armed struggle, women

suffers a great deal. History tells that is certain and true in the case of East Timor. And not only under the Indonesian occupation. It has been like this even during the past occupations, such as the Japanese occupation during World War II.

Rape, sexual abuses, arbitrary arrests

As I said before, rape arbitrary arrests and disappearances are common and widespread in East Timor. To monitor this situations, indeed, a daunting task. there are, nevertheless - and thanks to the work of the clandestine network in East Timor - well known cases, documented over a period o many years. The cases are too many to list them for this conference. I will try to present only a brief overview today.

The following statement of a refugee woman currently asking for political asylum in Australia illustrates the reality on a day to day basis. She said:

"Soldiers start to visit my home night and day and at any hour they would force me to have sex with them. At other times they were always hanging around the house calling out insults and making me feel that I was a prisoner in my house. I was continuously harassed and had no protection."

Women and military reprisals

On many occasions, the wives and/or daughters of the men accused of involvement in the resistance movement have been raped in front the accused (the man). One particular well reported case was that of a Timorese man known as **Lucas Baiasa**. He became mentally ill, unstable, after he was forced to witness his wife being raped by the Indonesian military. The woman gave birth to the child of one of the rapist's (1)

This kind of barbaric practice by the Indonesian military continues today and, it may even be happening as I speak to you.

According to reports published by the Australian-based East Timor Human Rights Centre (ETHRC), on the 8 December 1996, 23 years old **Alianca Soares dos Santos** was arrested by more than ten soldiers in Atsabao, a town of the Bobonáre district, in the Western region of East Timor. She was in hiding after being accused of harbouring members of the armed East Timorese Resistance - FALINTEL - at her home (in Licapat).

After being arrested, Alianca was tied up and threatened with a knife before she was taken to KORAMIL (Sub District Military Command) in Ermera. Koramil is a division of the Indonesian armed forces currently based in East Timor.

Alianca was detained for 14 days. While in detention, she was subjected to constant torture and rape by an ABRI(2) soldier. The soldier threatened to kill her if she reported the rape. She has identified one of her torturers as of the name Supardi.

Alianca was later transferred to a Rajawali military post at Luli Rema, where she was again raped, twice, by a soldier ranked sergeant (Sersan Kepala).

At night, soldiers slept around her. While detained at the military post, she was forced to obey orders from the soldiers and accede to all the needs of the post such boiling water and other duties. Alianca was released on 16 December. (3)

Sex Slaves or local wives

So, this is an example of women being used as sex slaves, perpetrated by corrupt and despot military regimes. It is just another widespread form of sexual abuse by the Indonesian military. This act of using the Timorese women as their sex slaves is also known as "local wives". The following account further illustrates this barbarism.

A Timorese woman known as Odilia(4), gave written account of the tragic experience of her sister. The statement says:

"At the time of the Indonesian invasion, Odilia's sister was married and expecting a child. Her husband fled to the bush, while she stayed behind in Dili. The Indonesian military took her to a house where she was confined as a sex slave for about one year.

There were other three women also forced to serve Indonesian soldiers. Odilia's sister was eventually able to get out of her situation as a " local wife" when her husband came back from bush.

However, her tragic story did not end there. His (the husband) family spoke ill of his wife to him, accusing her of having sold herself to the Indonesians. The couple never lived together after that, although he understood the true situation."(5)

Often, families do not accept cases of rape and reject the women who become subjected to the so-called local wives. As a result, many women victims, afterward, are either forced into prostitution or surrender to their situation as a 'sex slaves' in order to feed herself or/and children that she may have.

So, these victims become double victims. They were victims of the Indonesian soldiers occupying East Timor, and further become victims of their own society which failed to understand the trauma and humiliation these women have been subjected to. As a result, many women find speaking out about their tragedies a total taboo. As a result to, the perpetrators feel that the society also helps to protect them!

There are no refuge centres for women in East Timor today. There are no rehabilitation centres to deal with the victims of rapes and 'sex slaves'.

Family planning or genocide?

Indonesia practice a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The introduction of this program in East Timor, however, has caused problems for the Timorese women. On one hand, the Catholic Church does not agree as a matter of principle.

On the other, the military impose it upon the Timorese women, without proper information, education and above all, a consent of the women. Following is an account by and a Timorese women, **Bella Galhos**(6) to illustrate the magnitude of their problem in East Timor. She said:

Every six months, the military goes to all the high schools, seeking out the young girls for compulsory birth control. They came, and closed the door, and just injected us. We didn't know, we don't have the right to ask, We don't have children anymore.

After visiting the schools, the military still goes around to individual villages and houses to inject the women the find.

They don't know who we are, so they just inject us again. Some women get injected three times."

Bella says also that, 80% of East Timorese women have been subjected to compulsory family planning. Back in 1985, the Indonesian government had already published a five year birth control plan

for 95,000 East Timorese women.(7)

Action is Urgent

It is a big fight for us, women activists sho can speak out because we are in an open society, to make sure that victims of these horrendous crimes be protected and supported, and their perpetrators are brought to justice. It is a big fight because East Timor is under a foreign military occupation where many powerful counties decided to ignore completely. Some even sell weapons to Indonesia to kill the Timorese. All we hope is to count with the solidarity movement, specially the international women's organisations and the youth and students organisations sho -like us- have become increasingly more disgusted with despot, corrupt military regimes.

There is a need for urgent actions. Be it from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 or from independent NGOs to investigate these acts of violence against the women of East Timor. The rights of the women of East Timor for basic respect have been ignored for too long.

I request that this conference calls upo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to consult women in East Timor regarding atrocities in East Timor against women by the Indonesian military;

*NGOs and governments to support measures (ie. support the creation of technical and material conditions for women) leading to the full participation of Timorese women in decision-making process as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as well as in the struggle for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international agencies to enter East Timor to deal mainly with gender issues (ie. discrimination in jobs and education, domestic violence, disappearances of sons/daughters and husbands, etc).

*STOP Indonesian atrocities in East Timor, forced birth control under the Indonesian family planning program in East Timor.

*STOP the introduction of prostitution into East Timor from Indonesia

*introduction of free AIDS education and testing in East Timor BUT only by competent international agencies.

Short-term action

As an Non-Government Organisation (NGO), East Timor Relief Association (ETRA)(8), is working with other NGOs in East Timor to better understand the needs of the Timorese women and try to help as best as it can.

Ultimately, we aim to achieve setting-up of a centre run by Timorese, for the Timorese women who have been traumatised over the years.

Efforts are being made by some Catholic runs to give better education to have better career choices.

In Venilale(9), there is a technical school for young women, started by Sister Marlene. "There are about 150 students, aged between 18 and 20. They learn how to type use computers, cook and sew for commercial gain.

Training enables the young women to gain jobs in hospitals, hotels, airlines, restaurants and offices" (The Age, 6 December, 1996).

Another, school for young women is situated in Dare.(10) It is run by Sister Lourde's. She has 17 women who are also learning skills to find jobs, careers and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I believe that these projects will ultimately encourage them to have their own decisions, to have their own opinions to contribute to a better society.

Raising funds for these projects are vital to secure its completion. I therefore, appeal to you to help us financially.

Peace negotiations

The CNRM has proposed a three-phase Peace Plan as an attempt to end the conflict in East Timor.

Phase one (one-two years)

Indonesia-Portugal talks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Secretary General with East Timorese participation, to achieve an end to armed activities in East Timor;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reduction of Indonesian military personnel;

*removal of armaments;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ctivities;

*reduction of Indonesian civil servants;

*population census;

*access by UN Specialized Agencies for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esettlement, district development, women and children care and public health and immunization; restoration of all human rights, removal of restrictions on Portuguese and Tetum languages;

*setting up of an independent Human Rights commission, appointment of a UN Sec. Gen. Resident Representative in East Timor.

Phase Two -autonomy- (five years)

This is a transition stage of autonomy in which East Timorese would govern themselves democratically through their own local institutions.

This would require democratic election of a local Assembly with a five year mandate under UN supervision and assistance.

*Only East Timorese may vote and be elected;

*election of an East Timorese Governor for a five-year term by the Assembly;

*Assembly powers to include legisla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investment, property, immigration and others;

*withdrawal of all Indonesian troops and further reduction in Indonesian civil servants;

*territorial police force organised by the UN place under the command of the Governor, the territory is to have no army.

These may be extended by mutual consent between Indonesia and the East Timorese population expressing their views through a referendum.

Phase Three -self determination- :

Covers preparation for a self determination referendum, to be held within one year of the commencement of this phase, whereby the population may choose between free association or integration into Indonesia, or independence.

Foot notes;

(1) Violence Against Women in East Timor under the Indonesian Occupation and Suggested Measures to be Taken Petition to the UN Special Committee of 24 by the Free East Timor Japan Coalition, July, 23, 1996, page 3.

(2) Indonesian Armed Forces

(3) Annual Report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Timor 1996. East Timor Human Rights Centre (ETHRC). ETHRC has requested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to investigate Alianca's case.

(4) Odilia Victor is living in Portugal. In 1995 she sought asylum at the Australian Embassy in Jakarta but was refused.

(5) Violence Against Women in East Timor under the Indonesian Occupation and Suggested Measures to be Taken Petition to the UN Special Committee of 24 by the Free East Timor Japan Coalition, July, 23, 1996, page ??

(6) Bella Galhos is living in Canada. She defected whiles in Canada for the World Youth exchange program in 1994. She has recently received refugee status from the Canadian Government.

(7) Source: ACTivist newspaper of the ACT for Disarmament Coalition. Toronto, Canada, April 1995. Interview by Caroline Xia

(8) ETRA is based in Sydney, Australia. It run by Timorese and non-Timorese. It was founded in 1992. Its aim is to channel humanitarian aid and raise funds to support self-sustainable projects in East Timor.

(9) Venilale is situated in the eastern part of East Timor

(10) Dare is on the outskirts of Dili

(11) National Secretary of East Timor Relief Association

분단시대 여성현실과 평화통일운동

지은희 (여연 상임대표)

1997년은 남북 분단 50년이 되는 해이다.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국민에게 해방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 사령부는 9월 2일 명령 제1호로 북위 38도선 이북의 지역을 소련이, 그 이남지역을 미국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고 11월 무렵에 이르면 미국측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게 된다.

미군정 3년동안 남한 내 단정수립반대를 외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남북지도자들의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남북은 각각 정부를 수립하게 되어 남북 분단은 시작되었다.

최초의 남한 단독정부였던 이승만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무력북진통일론'이 주를 이루게 된다. 당시에는 통일을 논의하거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민간통일운동세력들은 철저히 탄압을 받았다.

1960년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61년 5·16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약 1년동안 반외세 자주화에 의한 민족통일운동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평화통일운동은 철저히 탄압되었고,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 때까지 통일 논의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었다.

국민들에게 통일에의 희망을 갖게 했던 7·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양국 정치집단의 내부통치 강화용임이 증명되면서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은 비공개 지하운동의 형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1980년 5월 민주항쟁이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압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지원이 밝혀지면서 5월 민주항쟁 이후 평화통일운동은 반미 자주화운동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띄게 된다. 80년대를 통한 민주화 투쟁은 마침내 집권세력으로부터 1988년 7·7선언을 이끌어 낸다.

7·7 선언은 반북 적대관계로 일관해오던 정권당국으로 하여금 남북교류와 교역을 통한 민족공동체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선언하도록 만든 의미를 지닌다.

이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군축문제, 미군철수운동, 반핵평화운동으로 영역도 확대되고 남북민간단체의 인적교류도 이루어 지게 되었다.

1991년도 9월 남북은 UN에 동시 가입하고 92년도 1월 비핵화 공동선언,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각 부문의 부분적 남북교류 실현, 각종 형태의 남북 교역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통일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

1992년 2월 남북정권 당국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다.

현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에 한

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을 받아들이려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계속되고 있고 분단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 또한 지속되고 있다.

1. 분단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들

(1) 이념의 희생자들

분단사회의 피해자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의 희생자가 된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 해방 직후부터 과열된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과 정치적 투쟁, 그와 연결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좌익으로 낙인찍힌 사람들, 6·25 동란을 통해 보복적인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희생당하며 사상적 입장을 강요당해 자진 월북한 남편이나 아들을 둔 여성들의 고통은, 단순히 월남이나 피난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의 경우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이산가족의 경우는 그들의 이산 원인이 사상적 문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삼는 우리의 현 체제 속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좌익사상가로 낙인찍였다거나 그 입장에서 활동한 좌익사범으로 정죄당한 경우는 그들의 고통을 공개하여 호소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좌·우익 사상의 대립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좌익사범의 아내나 어머니로서 이 시대를 그늘에서 한숨지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문제를, 우리는 그들의 개인적 문제로 돌려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특수한 이데올로기를 강요받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피해와 공통되기 때문이다.

(2) 전쟁의 피해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된 동족상잔의 전쟁은 막대한 병력 손실 이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뿌리깊은 상처와 손실을 남겼다. 남한의 경우만도 사상 24만 5천, 실종 30만, 부상 23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학살당한 자의 수를 13만으로, 그리고 납치당한 수를 8만 5천으로 잡고 있다. 이밖에도 30만에 가까운 전쟁미망인, 33만의 전쟁부상자, 10만의 고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공산군의 점령지역에서 의용군에 강제징집된 남한 젊은이들의 수만도 약 20만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당하며 남북으로 이동해감으로써 수많은 이산가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전쟁경험과 전쟁피해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남김으로써 통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3) 이산가족

'이산가족'이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및 손자 등의 직계 가족관계와 숙질간 및 4촌 이내의 방계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세에 의한 민족주권의 강탈, 분단 및 전쟁 등의 민족수난의 과정에서 이산되고 분단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가족이 자의에 의하여 헤어지거나 흔히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분열되는 소위 '결손가족'의 경우가 있으나, '이산가족'의 경우는 어떤 개별 가족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족국가적 입장에서 당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로서 결과된 것이다. 이 시대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원인은 일본 강점시대로까지 소급할 수도 있겠지만, 2차대전 이후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의 분열이 고정화됨으로써 가족관계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분단이 보다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한에서의 이산가족을 1,000만 인구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하는 객관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가족이 모두 남하한 경우보다는 남자들만 왔거나 가족의 일부만이 월남해 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북에 가족의 일부를 남기고 온 이산가족이다. 따라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들 이산가족들의 혈육을 모두 합치게 되면 그 수는 1,000만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이산가족'이라 부르는 수치의 근거를 해방 후 6·25 전까지 월남한 피난민 350만 명, 6·25 후 1·4후퇴 때 피난해 온 100만 명, 6·25 당시 피납된 인사 8만4천명, 6·25중에 발생한 행방불명자 30만3천명, 반공 포로 2만7천명, 사할린 동포 4만 명, 재일 북송동포 10만 명, 1953~83년 사이 어선납치 등으로 인한 납치인사 3,600여 명 중 아직도 억류된 440여 명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을 합치면 근 500만 명이고 따라서 헤어진 사람과 찾는 사람들 동시에 생각할 때 이산의 아픔을 당하는 가족은 1,000만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월남한 사람들과 가족 및 근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물론 북한 사회에서 정치적인 감시와 차별대우를 받는 대상으로서 분단과 분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다.

남한 인구 4,450만명(96년)과 북한인구 2,300만명(94년)을 합쳐 6,750만명으로 볼 때,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분단으로 인한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 불평등한 여성의 현실과 분단구조

(1)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분단 이데올로기의 영향

1995년 현재 총인구 44,851천명 중 여성 인구는 22,27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하며, 남성 100명당 여성은 98.7명이다. 평균수명은 여성은 76.8세 남성은 72.8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성사망율(출생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자수)은 30명 수준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출산과 관련하여 보면 출산률의 전반적인 저하와 출생성비에서의 남자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출생성비는 1994년 현재 115.4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한국의 강한 가부장제 문화가 잔존해 있음을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GNP는 1996년 현재 1만불을 넘어서고 있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경제생활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 1995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8.3%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 여성은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비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992년 현재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여성취업자의 62.7%가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직종에 많이 몰려 있어 1996년 현재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0.9%에 불과하다.

정치, 정책결정직에의 여성의 참여 현황을 보면 1996년 현재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의원은 9명으로 전체 의석 중 3%에 불과하며 97년 1월 UN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세계 139위이다. 지방의회 의원 1.56%, 광역의회 의원 5.76%, 여성장관은 23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정부 내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2%에 지나지 않는다.

1995년 통계청은 이러한 한국 여성의 상황을 근거로 세계 116개국과 비교한 한국여성의 권한척도가 세계 78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렇게 낮은 한국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는 분단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불평등은 남녀를 분할지배하여 최고의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적절히 활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분단 현실은 여성들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념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해 왔고, 우리 사회 전체를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로 구조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예컨데 70년대말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운동은 불온한 운동으로 낙인찍히고 경찰의 직접적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노동자의 권익운동은 좌익적 운동으로 규정 지워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남성중심의 권위주의 문화는 군사문화와 상통하는 것이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정치진출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분단현실은 여성의 낮은 정치적·경제적 지위형성에 원인이 되어온 것이다.

(2) 낮은 복지 수준과 높은 국방비

1997년도 남한의 국방예산은 14조3천5백억 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 예산은 6.2%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교역 11위를 자랑하는 남한으로서는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이다. 남한의 경우 과도한 방위비 지출로 인하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희생이 막심하다. 예를들면 외국의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방글라데시가 12.3%, 독일이 47%, 스위스가 63%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의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별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단적으로 복지수준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은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데서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방비는 주한미군 주둔비와 전력증강비, 군운영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의 78%(2조4,560억원)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전력증강을 이유로 대미 무기 구입이 세계에서 1위를(1995년) 차지하는 등 탈냉전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3) 군대와 성상품화, 성폭력

한국사회 구석구석까지 밀집해 있는 향락업소는 대략 40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0만 개의 향락퇴폐업소에 종사하는 일명 '호스티스' 혹은 겸업 매춘여성은 약 120~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는 한국의 젊은 여성인구 620만 명(15~29세)의 약 1/5에 해당된다.

한국사회 윤락산업의 확산 이유는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에서 윤락부분이 크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군대, 그리고 외국군의 주둔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윤락여성들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군대 밀집 지역하고 겹쳐 있다. 군대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 군대 옆에 으레 매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분단구조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경제적 이유이다. 70~80년대 독재 정권이 3S 정책이라는 우민화 정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보는 스포츠, 그리고 Sex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 정책이었다. 언론을 통폐합하면서 신문사에 주간지를 하나씩 발간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 성상품화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본의 투자 또한 성상품화 중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투자보다는 이윤이 많이 나는 3차산업 부분에 특히 자본이 집중되었다. 정부는 정치자금과 우중화의 목적 때문에 퇴폐향락업 증가를 용인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 다음 구조적인 원인과 더불어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실행의 문제이다. 여성이라는 것을 성적 대상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남성다움의 과시를 정복한 여성의 수로 가늠하는 의식과 관행이 문제이다. 한국은 이상적인 남성상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그런 것을 남성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을 이상적인 남성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의식, 이것이 결국은 성을 폭력으로 지배하게 되는 성폭력, 그리고 여성을 대상물로 생각하면서 맘대로 부리는 상품화된 성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 2위이다. 한국사회 성폭력의 특성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95%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거의 남성이다. 피해자의 30%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50%를 차지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70%를 차지한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은 10대에서 70대까지이며 학력, 계층과 무관하다. 또 가해자 중 정신병자나 범법자는 매우 적은 숫자이며 정상적,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 범죄는 일반 여성들의 스트레스 1위 요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을 발생, 유지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한국사회의 이중적 성규범과 전반적 폭력문화의 지배에 있다. 한국 폭력문화를 자본주의 문화와 군사문화의 결합으로 볼 때, 성상품화와 성폭력의 대상으로 여성들이 다른 어떤 사회보다 희생당하는 것은 분단 구조에 기인한다고 본다.

3. 80년대 이후 여성의 평화통일운동

(1) 민주화 운동과 여성권익향상운동

지난 30여 년동안 한국사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군사정권과 군사문화를 물리치고 남북간에 화해와 대화를 가능케 하는 민주정부, 민주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여성들은 80년대부터 피해자적인 소극적 입장을 탈피하고 민주화와 평화통일의 역사발전을 위해 주체세력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여성, 농민여성, 빈민여성, 젊은 여성들은 조직된 힘으로 군사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실천 운동에 앞장서 왔다. 민주화와 여성해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한국의 여성운동은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법의 개정을 성사시켰으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탁아제도를 입법화시켰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제 2기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의 주역으로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군사문화, 가부장제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이 이렇게 민주화의 주체세력으로 조직적 힘을 발휘한 것을 기반으로 90년대 들어와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발전에 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2)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법·제도 정비운동

1989년 북한을 방문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임수경씨가 판문점으로 귀국한 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자 1990년 여성들은 임수경씨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전개하였다. 국가보안법에는 통일해야 할 대상인 북한을 이적단체로 간주하고 있어 북한을 고무·찬양하거나, 정부의 허가없이 통신·회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법 적용과 집행과정에서 남용되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임으로써 철폐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1994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원칙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가 망라된 민간통일운동체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에 가입한 여연은 매년 8.15 통일행사

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에 참가하였다.

또한 1992년 동두천 미군 기지촌에서 주한미군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윤금이양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경찰이 미국인을 체포하여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 정부대표가 참석해야 하고 미군 당국이 요구하면 언제든 피의자를 미군측에 넘겨줘야 하는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해 미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여연은 1996년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 가입하여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금요 정기시위를 전개하면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사용료 받기와 미군기지 되찾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3) 남북여성교류운동

여성은 통일·평화운동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남북교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91년 11월 25일-30일까지 분단 이후 최초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가 그것이다.

서울 토론회에서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져 남북의 통일방안과 평화문제, 여성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토론이었다. 서울토론회는 '통일과 여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북측의 통일방안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남북의 통일방안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과 그 동안 정부만이 독점하고 있었던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을 민간차원에서도 자유롭게 연구,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해 92년 9월1일-6일까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열린 평양토론회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여성들이 평양에서 만난 민간교류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대단결, 일본의 전후보상과 책임,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 등의 주요 주제들을 민간차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남북여성 교류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직접 듣게 된 것과 정신대 문제와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를 93년 제4차 동경토론회의 주제로 삼기로 합의한 점이 평양토론회의 또 다른 성과였다.

이 남북여성교류는 그 동안 민주화운동과 통일·평화운동을 수행해 온 진보적 여성운동의 존재와 그 역량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범민족적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이 두 토론회를 통한 남북여성의 역사적인 만남은 남과 북의 여성들이 따뜻한 자매애와 통일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여성의 통일·평화운동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다.

한편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주관해 온 남측 실행위원회는 1997년 3월 28일 258명의 발기인이 주축이 되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로 개편되어 여성평화운동의 상설조직으로 탄생하였다.

(4) 군축운동

여성은 90년 통일·평화운동의 기본방향을 평화군축으로 정하고 이에 맞추어 운동을 전개해 왔다. 여성의 통일·평화운동은 국제적으로는 반핵군축운동이 고조되고 국내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의 반통일적인 정서가 우세했던 정황 속에서 전개되었다.

여성은 통일·평화운동의 첫 단계로 남한의 방위비 삭감운동을 벌여 한반도 평화 군축의 실마리를 풀어 보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군축문제를 복지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개인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방위비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나 고용문제, 물가문제, 세금문제, 주택문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문제라는 점을 여성들에게 널리 인식시켜 평화 군축 운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여성은 평화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1991년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을 만들고 정책토론회, 결의대회, 캠페인, 국회 국방위원에게 편지 보내기 등 실천 활동을 통해 방위비 문제를 본격적으로 사회 여론화시키기 시작했다.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은 방위비 문제를 복지 문제와 연결시켜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개해 온 방위비 삭감운동은 우선 군부와 정치권의 보수 강경세력의 군비경쟁 논리를 반박하고 방위비 삭감의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금기 대상이었던 방위비 문제를 공개적으로 여론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방위비 삭감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를 알리고 특히 방위비를 여성복지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평화군축운동을 여성대중의 생활상의 요구와 보다 가깝게 접근시켜 여성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4) 통일·평화운동의 대중화

여성의 평화운동의 대중화 작업은 89년 핵발전소 건설 저지운동, 군사기지철수운동, 핵무기철수운동에 활동 목표를 두고 일차적으로 핵발전소 11기, 12호기 건설 저지운동에 주력하였다. 반핵평화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핵발전소 건설 저지 서명운동 등을 통해 회원단체들에게 반핵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91년은 통일과 평화문제의 연구, 대중선전사업, 교류사업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 동안 축적해 온 여성운동의 역량이 통일과 평화운동에서 활짝 꽃핀 한해였다. 특히 이 해 6월에는 '반공의 달'을 '평화의 달'로 바꾸기 위해 대규모 대중집회인 '여성평화한마당'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벌였다. 이 평화집회에서는 전쟁장난감을 평화장난감으로 바꾸어주기, 만화가와 함께 통일·평화 그림그리기, 평화에 관한 그림전시회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대중적인 문화행사를 통해 통일이라는 주제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하였다.

93년에는 '통일 마라톤대회'를 열었는데, 250여명이 참가하여 통일을 상징하는 각종 놀이와 단축 마라톤대회를 하였고 이를 통해 어린이 등 일반대중들이 통일문제에 보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95년, 96년 연이은 북한의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자 여연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해 왔다. 95년과 96년에 연이은 수해로 북한은 논밭과 곡물이 유실되어 식량사정이 최악인데다가 외화난이 가속되어 곡물수입이 여의치 않아 식량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을 접한 여연은 1995년 1차 북한수해동포돕기 여성캠페인을 전개하여 580만원을 남측적십자사에 전달하였다. 1997년에는 평화를 만드는여성회와 여연 30개 회원단체가 중심이 되어 '북한여성과 밥나누기·사랑나누기'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7,700만원(4.14-6.11)을 모금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민간 차원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범국민적인 호응 속에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북한동포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화해의 계기로 작용하면서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한국의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여성해방, 민족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일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우리와 목표를 함께 하는 민간 통일·평화운동단체들과 지속적인 연대운동을 해왔다. 다만 여성들은 여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때문에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운동방식을 개발해 왔고 이제 세계 여성평화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려고 한다. 특히 분쟁 중인 국가의 여성들과는 고통을 함께 하며 운동방식을 공유하고, 분쟁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룬 국가의 여성들에게서는 분쟁을 극복하는 방식과 통일 이후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통일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제 세계의 여성들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여 이 지구촌을 평화로운 사회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 역사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한명숙(1997년), 여연운동 10년사 - 통일·평화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2. 노중선, 민족통일운동의 전개와 발전방향,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자료실
3. 이효재(1985년),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4. 김창수(1997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경실련 통일협회
5. -----(1995년), 통일은 참 쉽소, 한국여성단체연합
6. 신혜수(1997년), 김영삼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Women and Peaceful Unification Movement in Divided Nation

Chi Eun-hee
Standing Representative of KWAU

1. Introduction : A Brief History of Division

It has been half a century since the division of Korea. Emancipation from thirty-five-year Japanese colonial rule did not bring genuine liberation to the Korean people. The first ordinance of the Allied Powers in September 1945 was to announce Russian occupation in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and American occupation in the south.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Americans in the South not only dismantled the Japanese forces but also prepared for a separate government of the South.

During three-year of American occupation, the Korean people in both sides constantly demanded the establishment of one unified government, but without success. On May 10, 1948 the Republic of Korea was declared in the South, while in October of the yea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set up in the North. This was the tragic beginning of the divis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hee Syng-man government propagated "unification by force," crushing down social movement which demanded peaceful resolutions. When the Rhee regime was overthrown by student demonstrations in 1960, South Koreans had hight hopes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but it was again suppressed by the military coup of Park Chung-hee in 1961. Until July 4 1972 when the North and South Joint Declaration was announced, every civilian discourse on unification was totally shut up. Even the Declaration, however, was to serve the logic of regime maintenance in both sides, not the genuine objective of national reunification. Civilian efforts for peaceful unification, thus, came to be carried out in underground.

Tragic history for Koreans did not end there. When Park was assassinated after twenty-year of iron rule, another general, Chun Doo-hwan seized power through a coup and a bloody crack down of Kwangju uprising in 1980. When South Koreans learned that this massacre was carried out under a tacit support of Washington, the peaceful unification movement made clear its anti-American stance.

And finally the Roh Tae-woo government came to announce the July 7 Declaration in 1988, which meant a major turning point in the relation of two Koreas. Under this situation, civilian unification movement became more active than ever, demanding the repeal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reduction of military spending, the withdrawal of the American Forces stationed in the South, and the stop of all nuclear programs in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North and Sou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separately in September 1991, some positive actions followed afterward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in 1992, the stoppage of the Team Spirit Military Exercise, and increased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Finally the government in the North and the South signed the "North and South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Cooperation" in 1992.

Currently South Korea in a party of the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which was established to provide the light water reactors and alternative energy technology to the North. North Korea has recently expressed its cautious approach of accepting the four-party talks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roposed by Seoul and Washington.

2. Direct Damages Caused by the Division

2-1. Victims of Ideology

Women who have suffered the most due to the division of Korea are those who have husband or children victimized by ideological confrontation. Since the emancipation in 1945, people who took part in socialist circles or labor and peasant movement have been stigmatized as "reds." Revenge and intimidation against these people was more intensified after the Korean War. Some of them moved to the North, leaving behind their wife and children. These women and children, living in a country whose highest state ideal has been "anti-communism," could not even spell out a word about their beloved because then they would have been further isolated and oppressed in South Korean society. Without guaranteeing the freedom of ideology and political belief the suffering of these people will not end.

2-2. Damage of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which lasted for three years did not only left massive physical casualties, but

more deeply an irreparable scar to all Koreans. In case of the South, 240,000 souls were lost, 300,000 were disappeared, and 230,000 were injured. In particular, it is estimated that 130,000 civilians were massacred, while 85,000 were kidnapped to the North. More than 300,000 were widowed, 330,000 remained disabled, and 100,000 were orphaned. Around 200,000 young men were drafted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from their occupied areas.

The whole Korean population was not free from the damage caused by war and their life was totally disrupted. Most of all, the Korean War left unerasable hatred and distrust to the people who experienced it.

2-3. Separated Families

Separated family means when parents,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grandchildren or relatives were separated, not by their own will, but due to the division and the war. Separated families are different from families divided because of divorce or because of a loss of a family member due to unexpected accident, or any other reason. Separated families are not the result of a personal problem. They are the victims of the divided history, and the reunion of these separated families cannot be realized until the divided two Koreas are reuni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imates the number of the separated families to include ten million people, though it is not very exact. The South Korean Red Cross understands that in most cases only male members or a part of the family moved to the South, so the rest of the family remained in the North. The number of ten million thus includes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in the North as well.

According to another information, 3.5 million people came down to the South in the period of the emancipation in 1945 to 1950 before the breakout of the war. In addition, the following numbers are taken into the consideration of separated families : one million moved to the South during the war; 84,000 were kidnapped to the North; 303,000 were disappeared; 27,000 became prisoners of war; 40,000 Koreans in Sakhalin returned to Korea; 10,000 Korean residents in Japan moved to the North; and 3,600 South Koreans were kidnapped from 1953 to 1983. When all these numbers are calculated, the total comes to five million. Thus five million who left and another five million who remained make ten million people of separated families.

North Korean authorities has announced that two thirds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have more

than one family member in the South. It is not difficult to imagine this population, too, might have gone through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in the North Korean society.

Today population in the South is 44 million (1996), while in the North is 23 million. Altogether makes 67 million. Therefore, we can roughly argue that one seventh of Koreans have directly affected by and suffer from the divided situation.

3. Institutionalized Division and Women' Life

3-1. The Division and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of Women

Women population in South Korea accounts for 49.7% (22 million)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ratio compared with male population is 98.7(when men are set to 100). Average life span of women is 76.8 years, while men live 72.8 years. Maternity death rate (per 100,000 pregnant women) is around thirty, much higher than that of advanced countries. Fertility rate has dramatically decreased in the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rocess, but the ratio between male and female babies is rapidly widening, which recorded 115.4 in 1994, the highest in the world.

The growth rate of South Korean economy is the eleventh in the world and the GNP per capita overpassed $10,000 in 1996. The share of women'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s 48.3%, accounting for 40.1% of the total working population. Women are mostly employed in clerical, sales, and service sector, while their advance in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fessional positions is still low. In 1992, 62.7% of working women were employed in work places with less than four employees, meaning that women usually work in low paid jobs. In 1996, women were paid 60.9% of the male salary.

In terms of women'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the reality is much more gloomy. According to a 1996 statistics, only 3% (nine among 299)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as women. A UN data points out that this low rate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the 139th in the world. In local councils the rate is 1.56%, while in metropolitan councils 5.76%. There is only one minister in the cabinet, and the share of wome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only 7.2%. In 1995 the Office of Statistics released information that when all these figures were compared with other nations, South Korean women's rights index was the 78th among 116 examined countries.

The problem is that this reality is closed linked to the divided situ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capitalism has joined with patriarchical ideology to maximize the exploitation of women's labor. But under the division, not on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uthoritarian culture was justified, but further women's criticism against the shortfalls of market forces was oppressed.

For example, in the 1970s when female workers stood up demanding freedom of association, they were recklessly crushed down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his is true even today. Labor movement is often viewed as propagated by socialist forces. The men-centered authoritarian culture prevailing in South Korean society, moreover, has hindered women's advance in policy-making process.

3-2. High Military Spending and Low Social Welfare

The defense budget for the year of 1997 is 14,350 billion *won*, accounting for 21.1% of the total budget. On the contrary,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is only 6.2%, which is very low considering the size of the South Korean economy. When the share of social welfare budget in other countries is compared, the seriousness of this imbalance becomes more clear; 12.3% in Bangladesh, 47% in Germany, 63% in the Switzerland.

In South Korea welfare is not taken care of by the government but by individuals themselves. Neither the costs for maternity protection nor the services for the disabled are paid by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defense budget is spent to the American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to the purchase of military weapons and to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military. Korean taxpayers pay 78% of the expenses needed for the maintenance of the American forces. The South Korean military also ranked the biggest purchaser of American weapons in 1995.

3-3. Commercialization of Sex and Sexual Violence

The number of entertainment bars is estimated to be 400,000 in South Korea. Women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prostitution then should be around 1.2 to 1.5 million, equal to one fifth of young female population from 15 to 29 years old (6.2 million).

The reason of the rapid spread of entertainment business in South Korean society is found in the

structural problems of its economy. During the period after the Korean War, the increase of prostitution was related with the station of American forces. Bars and prostitutes thrived in villages nearby military bases. In a divided country with full of military bases and soldiers was a fertile ground for prostitution.

There was also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In the 1970s and 1980s military dictatorship utilized the so-called "three S" policy to diffuse popular interest from politics to sports, screen and sex. For example, authoritarian regimes screened the media, but allowed to publish weeklies, most of which were yellow journalism. Capital also flew not to the manufacturing but to the service sector which guaranteed more profits.

There is, however, a more fundamental root of this problem;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the people. Women are viewed as the object of sex, while men feel proud for conquering and possessing this object. Koreans believe men should be strong both physically and sexually (and even violent). This patriarchical misconceptions on the role of male and female has facilitated the commercialization of sex and sexual offenses.

South Korea marks the second highest rate of sexual violence. 95% of the victimized are women and in most cases the offenders are men. 30% of the victims are children under the age of thirteen, and 50% are teenagers. 70% of sexual violence was committed by close acquaintances. Few of the offenders were insane or criminals. Ordinary people abused women without feeling guilt or shame. The victimized vary from teenagers to a seventy-year-old women. Today sexual violence has become the number one stress of South Korean women. The fundamental root of such frequent sexual abuse in South Korean society is the delicate combination of capitalist and military culture.

4. Women and Peaceful Unification Movement since the 1980s

4-1. Women's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and Women's Rights

For the past three decades South Korean people have endlessly fought for democracy and peaceful unification. Women were not exception. Organized female workers, women farmers, and young students struggled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for political freedom. Women's movement started with the objective of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The amendment of the Family Act, the enactment of the Equal Employment Law and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and legislations on the day care system are just few examples of women's success.

We have also campaign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ct, which is believed to be enacted sooner or later. With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women's movement has campaigned for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as well to make women's voice heard in policy-making processes.

4-2. Campaigns to Repeal and Amend Legislations that Hinder Peaceful Unification

In 1989 when Yim Su-kyung, a student of *Chundaehup* (a national organiz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de an unauthorized visit to North Korea to discuss unification issue with North Korean students and crossed over the DMZ to come back home, she was instantly arrested by the security agent. Since then women's groups have been active in the campaigns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Law defines North Korea as an enemy institution, and anyone who praises or communicates with the North without government authorization is to be prosecuted. The NSL has been abused as a political apparatus to suppress labor movement and civilian efforts for peaceful unification. Human rights have constantly been violated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KWAU joined the National Council for Independent and Peaceful Unification, an umbrella organization for unification movement, in 1994, and has actively campaigned to abolish the NSL.

Another major campaign is to repeal the SOFA, the inequality of which was clearly revealed with the incident of Yoon Keum-hee whom was brutally killed by an American soldier. According to the SOFA, when South Korean prosecutors are to arrest and interrogate suspected Americans in South Korea, a representative of the American government must always be present together. Moreover, whenever there is a request from the American military authorities, the suspect must be handed over to the Americans. If the suspect was on his/her duty or escapes to the American military base, South Korean court cannot exercise its judicial power.

In 1996 KWAU joined the "National Campaign Center against Crimes Committed by American Soldiers," and has been participated in the Friday Rally in front of the Yongsan American military base.

4-3. Exchange Visits with North Korean Women

In November 1991 Korean women marked a historical event in the history of civilian unification

movement; they successfully organized the Seoul Conference on "Peace in Asia and the Role of Women," in which North Korean women took part for the first time. Topics such as "patriarchical culture and women," "unification and women," and "peace and women" were debated in the conference. But most of all, discussions on unification methodology were most interesting and meaningful. North Korean delegation openly suggested their version of unification method in the Seoul Conference, and the participants of the meeting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compare it with the South Korean alternatives and freely exchanged opinions.

Next year in 1992 South Korean women made a visit to Pyongyang and proposed the South Korean unification method and discussed it with North Koreans. During the Pyongyang Conference, issues such as "ways to realize national unity," "Japanese responsibility and war reparation," and "the role of women for the peace in Asia" were dealt with. This was a milestone in opening a civilian channel of dialogu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We also heard vivid testimony of former comfort women living in the North. In the Tokyo Conference in 1993,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war repar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the main agenda.

Through these exchange visits and meetings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deeply felt the national identity and sisterhood. They also recognized their endeavors and their role to bring democracy and peaceful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Conference on "Peace in Asia and the Role of Women" formed a new unification movement group called "Women Making Peace" in March 1997, starting with 258 members.

4-4. Campaign for the Reduction of Defense Budget

In 1990 KWAU set the key words of peaceful unification movement as "peace" and "disarma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organized actions and campaigns to realize this objective. This campaign, however, began in a paradoxical situation; anti-nuclear and disarmament movement was growing in international arena, but domestically authoritarian regime strengthened anti-communist and anti-North stance.

In this situation women's movement approached the defense budget issue, especially in relation with the welfare budget. This strategy was effective because the public could easily link this political

issue to their daily life. They learned how the budget was directly related to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e tax system, housing and the overall living costs. This approach helped to increase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ampaign for the reduction of military spending.

In 1991 groups working for peace joined and formed the "Solidarity for Reduction of Defense Budget," and organized rallies, campaigns, policy debates, and other programs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this issue. The Solidarity also has tried to provide feasible policy alternatives to guarante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ublic by reducing the defense expenses and using that budget to social welfare.. We believe this campaign has been effective in raising public understanding on the structural cause of huge military spending and in providing alternative policies as well.

4-5. Popular Campaign for Peace and Unification

Since 1989 women's movement has campaigned to stop furthe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stations, to withdraw nuclear arsenal and American military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We organized anti-nuclear rallies and collected signatures in opposition to the new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waste dump sites.

In 1991 we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research, public advocacy, and cultural events. In June of the same year we renamed June from "the month of anti-communism" to "the month of peace." We prepared a mass rally titled "Women's Forum for Peace" jointly with the *Chunkyojo*, an unauthorized teachers' trade union. In the forum we distributed toys for peace, drew cartoons with cartoonists, and hold an exhibition of pictures as well.

In 1993 we organized a marathon for peace, in which 250 people took part and ran together. Through these campaigns children and ordinary citizens became more aware of the unification and peace issues.

Currently the major campaign is the food aid to North Koreans. Hit by floods, the food situation in the North rapidly deteriorated. Furthermore, economic malfunction and decreased trade with other countries has made the situation worse. KWAU launched its first food aid campaign in 1995 and delivered 5.8 million *won* to the Red Cross. In 1997 the Women Making Peace and thirty organizations in affiliation with KWAU carried out the "Let's Share Rice and Love" campaign and collected 77 million *won* (from April 14 to June 11). This campaign is ongoing. Despite various interferences by the

government, the food aid campaign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We sincerely hope that this campaign could be a turning point in melting down the hatred and distrust between the divided nation.

5. Conclusion

Korean women have fought for gender equality,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of Korea. In the process we have worked together with civil organizations sharing the same objective of peaceful unification. We have developed strategies to make our messages delivered most effectively, and have joined hand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We are open to learn form women in other countries who have gone through social turmoil and conflicts. We want to exchange experiences and wisdom to be prepare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minimize the problems.

I believe it is high time for women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the peace of the global community.

통일이 여성에 미친 영향 - 동독의 경험

Tatjana Ansbach

먼저 나의 서독 동료 Sabine Berghahn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글을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작하기 앞서 동독이었을 당시 생활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다. 당시에는 실업이라는 것이 없었다.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 보장되었다. 따라서 여성 대부분도 직업 여성이었다. 1980년대 말 여성 취업률(학생까지 포함해서)은 91.2% 였다.

3-6세 어린이의 95%가 유치원에 다녔고, 1-3세 유아의 80%가 유아원에서 보육되었다. 10-11세까지의 초등학교 어린이의 60%가 방과후 모임에서 보호되었다. 이에 대한 보육·교육비를 비롯하여 어린이를 위한 휴일 캠프 또는 취미 활동 비용은 최소한의 형식적 액수에 불과했다.

여성에게는 집안일 을 돌볼 수 있도록 매달 하루의 유급 월차가 있었고, 여성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 강좌가 모든 분야에서 개설되었다. 출산 휴가는 1년 동안 주어졌고, 이 기간 동안 평상 임금의 70%가 정부로부터 지급되었으며, 이후 다시 원래 일자리로 복귀되는 것 또한 보장되었다. 아이들이 아픈 경우에는 부모 가운데 한 쪽이 1년에 6주까지 유급 휴가를 낼 수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으면 거의 천국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았다. 가사일은 여성이 거의 전담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사회학적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집안일의 75%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2개의 직업, 즉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타협안으로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지배적인 규정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동독의 지배적인 사회·경제적 위계질서 상층이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현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독 권력 구조의 핵심이었던 동독 공산당(SED)의 정치국에는 단 2명의 여성만이 있었다. 또한 대기업 경영진의 4%만이 여성이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통일 후 여성의 삶이 얼마나 급격히 변하게 되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제서야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존엄성이 자신의 경제적 자립에 의해 결정되고, 취업이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 일하는 것이야말로 자아실현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동독 시절 무엇이 가장 좋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나는 한번도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없었다. 나는 미혼모였고, 내 아들은 자주 병치레를 했다. 그래도 나는 과학분야에서 나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었고, 내가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 불평하거나 힘들어한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번에는 현재 통일된 독일에서 여성의 삶은 어떠한가를 설명해 보겠다. 왜 독일 여성들이 이런 상황이 전개되도록 허용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동독 하에서 여러 사회적 권리는 '조국'이 하사하는 선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여성을 비

롯한 일반 국민에게 이들 사회적 권리와 함께 정치적 권리도 동시에 주어지지는 않는다. 여성들은 싸워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 낸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것을 누렸을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사회적 권리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통일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성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할 조직적 기반을 갖지 못했다.

1989년 Unabhangiger Frauenverband 라는 새로운 여성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통일 이전 정치 변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통일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견하지 못했던 다른 많은 '선각자적' 조직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다. 이 조직들은 서독의 상이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도, 이에 대응할 힘도 갖고 있지 못했다.

2. 정치 운동가들은 동독의 개혁을 원했으나, 동독 국민은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서독과의 급속한 통일을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작도 한몫을 했다. 모든 동독인들은 당시 서독 수상 콜이 '꽃피는 새사회'를 만들자고 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콜 수상은 동독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당(기독민주당)을 찍어야 '꽃피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자금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동독인들은 그것을 원했다. 따라서 그렇게 분홍빛 꿈에 젖은 동독인들은 정치제도나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여성들도 포함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지도, 더 많은 또는 나은 권리를 위해 싸우지도 못했던 것이다.

3. 다른 두개의 국가가 통일하는 과정은 그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고에 귀기울여 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의 제도를 평가해 보고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독은 아무것도 변화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서독 국민 대다수는 자신들의 생활도 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명의 기회, 즉 통일을, 활용할 국민적 토대가 없었던 것이다.

4. 통일 이후 서독의 경제(정치·법까지 포함하여) 제도가 그대로 동독에 복제되었다.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이 찬양했듯이 서독 제도의 가장 큰 강점은 효율성이었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에 비해 이윤 창출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효율성은 그 자체로써 가치가 되었고, 사람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신 받들듯이 했다. 그러나 효율적인 경제제도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정책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착취할 수 있는 노동자를 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효율성이 높은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과 가정의 병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건을 뜻하기도 한다. 내 생각에는 과연 경제적인 효율성이 다른 모든 가치를 충족시킬 정도로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여성해방을 이룰 수 없다고 믿는다.

5. 실무적인 면에서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의 법제를 동독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까닭은 급속한 통일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독 법의 동독 적용을 시작으로 우리는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서독의 규범과 법률까지도 계승받게 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여성의 권리가 후퇴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서 한가지 질문이 남는다. 동·서독 여

성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상호 공감이나 협력은 없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 역시 실망스러운 것이다. 동·서독으로 나뉘어 살아온 독일 여성들은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다. 내가 일하던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다. 통일 이후 여성교수의 수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교수 증진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었다. 대학 총장은 모든 여성 교수들이 모여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모임에 참석한 교수의 반은 동독 출신이었고, 나머지 반은 서독 출신이었다. 교수들이 제출한 안만 보고도 그것이 동독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서독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있었다. 첫 번째 안은 여성 관점에서 과학비평을 전공한 교수를 임용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 안은 여성학 전공 교수를 뽑자는 것이었다. 셋째 안은 자연과학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도 여성 전공자가 많이 임용되지 않고 있으니 자연과학 전공 여교수를 뽑자는 것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안은 여성들이 논문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예산을 쓰자는 것이었다. 동독출신 참석자들은 첫 번째 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일은 하는 것은 미친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 서독 출신 참석자들은 네 번째 안은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반박했다. (나 자신은 이미 대학이 남성지배적 기구가 되어 버린 상태에서 이런 식의 예산지원은 단순한 미봉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론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내 생각에 서독출신 여성들은 사람들의 인식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반면 동동출신 여성들은 경제적 조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두가지 모두 중요하므로 두 관점이 함께 실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How unification affected women's life - an East German experience

Tatjana Ansbach

I have to thank my Western colleague, Sabine Berghahn. without her support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prepare this information at short notice.

To start with, I would like to tell you a little about life in GDR. There never was unemployment; whoever wanted it did in fact find a job. Consequently, most women were employed. In the late 80es the female employment rate was 91.2% (including students).

95% of the children between 3 and 6 went to kindergarten, 80% of children between 1 and 3 had a place in a creche. Over 60% of the school children up to an age of 10 or 11 were looked after in afternoon groups. Fees for these institutions as well as for holiday camps or hobby groups for children were of a merely symbolic character.

Women had one payed free day per month for taking care of their households. Special courses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women were organized all over.

A one year break after giving birth to a child was payed by the government (approximately 70% of the wage earned before) and retaining the job was guaranteed. If children were ill, one of the parents was allowed paid leave up to six weeks per year.

All this sounds very much like talking of paradise. Yet, it was not, for women did bear the main burden of the household. Sociological investigations of that time indicate that women did 75% of the homework. (By the way, such investigations in the 80es showed, that this was much less true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refore, one can say that women had often two jobs - one at work and one at home. Many women wanted to find some compromise - to work part time. But this was nearly impossible because of ruling regulations.

I assume that this is the main reason why in GDR in the prevailing social or economic hierarchy top positions were, as a rule, occupied by men. In the Politbureau of the Communist Party (SED), which was the center of GDR power structures, there were only two women. Only 4% of the general managers of the largest enterprises were female.

But still, looking back today, one has to state that women's life situation has changed dramatically after unification. Only now many of them do understand how much their self-esteem was determined

by their economic independence and that employment was part of their personality. Working was a way of realizing one's own identity. If I were asked "what is the best I can say about my life in GDR", I would answer:I never was forced to choose between family and work. I am unmarried mother, my son was very often ill, and still I could develop myself in scientific work. And I never had the impression that my son was suffering from my engagement in science.

I shall try to draw a picture on what women's world in Germany now looks like: Women are the first to be fired and the last to be hired. Therefore, their part in unemployment is twice as high as unemployment of men. Women understood tha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is they who give birth to children and who are supposed to take care of the family. This is certainly one of the reasons of the dramatic breakdown of birth rates after unification. Numbers of children per woman at the age of being able to give birth in East and West Germany are significant. In 1985 (five years before unification) one woman in the East 0.80 children. This is less than half of the number of 1985. In the meantime the birthrate in the East again rose a little, but it is still far from the number reached in the West.

At the same time, the wish for having children did not decrease. A harmonic family life, children and good friends are high-ranking values now as before.

These new realities did not change the attitude of women. It is much to the surprise of those who expected a quick adaptation of Eastern people to the Western way of life that today still only 5 % of East German women believe that being a housewife is something worth to strive for.

It is not so easy to understand why women admitted those things to happen. I see some main reasons:

1. Social rights in GDR were presented like a gift by "father State". They were not accompanied by adequate political rights, neither in general nor for women in particular. Women had not fought for them, they just enjoyed them. But social rights without political rights cannot last (the opposite is true as well, of course). Women were caught by surprise by the developments and they had not suitable organizations to counter the new conditions.

In 1989 a new women's organization was founded, the Unabhangiger Frauenverband. This organization participated very actively in the process of political transformation, but soon after unification it lost its previously large echo. The women's organization shared a common destiny with many other "pioneers" who were not prepared for the changes to come, who had no concepts, who were not strong enough to encounter the absolutely strange structures prevailing in the West.

2. The activists of the political events wanted to reform the GDR, they did not want to give up the very existence of the state. But most of the East Germans decided otherwise. They wanted quick 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By the way, manipulation of moods worked well. Everybody in my country remembers, that the Western Chancellor Kohl promised "blooming landscapes". He told East German voters that voting for his party - the Christian Democrats - would mean voting for those who dispose of the money needed to cultivate these "blooming landscapes". And this was, what many people wanted. They wanted to live in a world looking like Western advertising as they knew it from TV.

Thus, waiting for "blooming landscapes" many people did no longer think about political structures, about economic structures and so.

Under such circumstances people (including women) were not able to defend their rights or to fight for more and better rights.

3. Unification of two different States would have been a marvellous chance to reform the society, to look for totally new solutions, to be open for new ideas. But this would presuppose that equal partners are sitting round the table, that both of them are ready to examine their own systems and to learn from each other. But the West was not prepared to change anything.

This did not only apply to politicians. Most part of the population of West Germany did not think that life there would have to change, too. Therefore, there was no basis for making use of this opportunity to bring fundamental changes into the people's life.

4. The Western economic (political, legal....) system was simply extended to the territory and people of the GDR. Effectivity is one of the main advantages of the Western system as praised by politicians and main stream media. Indeed, market economy is more effective in terms of profit than centrally planned economies. Effectivity became a value in itself and people believed in economic effectivity like in a God.

But effective economies need flexible workers who can work hard at any time, longer than agreed upon and so on. In other words: exploitable workers. It is the economic system which implies high efficiency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makes it more and more difficult to combine employment and care for the family.

In my opinion, it is high time to raise the question whether economic effectivity is really such an important value that all other values have to subordinate to it.

This question is not discussed publicly in Germany. But I believe that without answering this

question the emancipation of women will be impossible.

5. Technically, the unification of both German States was made by extending the Western legal system to East Germany. The pretext for that was the necessity of a speedy unification. But with the Western law we inherited all those norms and regulations which worsen women's situation.

Formal equality in rights in fact is unequality, of course. Women need special rights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same chances. GDR law included some of such rules (although by far not enough), Western law does not. Of course, there are some exceptions. Most of the countrie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ave laws providing for the preferential recruiting of women in public services if they are equally capable as their male competitors for a job. But those laws do not work well. One of the reason is that the superior European law regards this approach as discriminatory. And I believe that such laws, if implemented, can move something, but they do not change the core of the issue.

Having analyzed some of the reasons for the disappointing developments in the filed of women's rights one question remains to be answered: Was there any reciprocal inspiration between women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Again, the answer is rather frustrating. The relations between both parts of the female population can best be described as not-understanding each other.

To make clear what I mean I'll give you an example of my own experience: The event took place in the University where I used to work. After unification the number of women professors decreased by 50%. But suddenly some money appeared for the purpose of the promotion of women.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Frau Prof. Durkop asked all women professors to meet with her and to discuss the question how to use the money. Amongst the women attending the meeting were half Eastern and half Western. And looking at the proposals made you could easily judge whether this was on Eastern or a Western point of view. First proposal was to employ a professor dealing with a feminist criticism of sciences. Second proposal was to employ a professor dealing with problems concerning women especially. Third proposal was to employ a professor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s, because in this field women are still more underrepresented than in other fields. Fourth proposal was to take the money to allow women to work longer on of their theses. Eastern participants did not understand the first proposal. They regarded that to be crazy. Western participants thought that the fourth proposal was unrealistic. (I myself refused to take part in this discussion because I regarded this money as a simple alibi after having made the university a mainly male institution.)

To me it seems that women in Western Germany think that change has to start in the heads of

people, whilst women in the East believe that change has to start in economic conditions.

Women in the West speak about the feminization of language. This is something difficult to imagine in English, but in German language it is easy to make differences between he/teacher and she/teacher, he/worker and she/worker and so on. Another topic in Western discussion is a quota system. Women demand that (at least in public services) women should be employed on a preferential basis, as long as they are underrepresented.

Women in the East discuss questions of kindergartens, creches and so on. They want family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at their place of work. Especially the latter demand is something which does not fit into the economic system and has, therefore, no basis amongst Western women activists.

It would be marvellous if both views in common would be accomplished. Both are important.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ILPF)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국제적 지도력 : 평화를 위한 여성의 국제적 활동 평가

Betty Burkes (WILPF 미국 지회장)

올해는 WILPF가 창립 8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창립 멤버들은 1915년 그 당시 유럽에서의 전쟁에 반대하고 행동을 취하며 향후 전쟁을 종식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헤이그에 집결했습니다. WILPF의 주목표는 평화적 수단으로 세계 무기감축, 여성의 권리 확보, 인종적, 경제적 정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든 형태의 폭력 종식 등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WILPF는 전세계에 평화, 자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심리적 조건 등을 구축하고자 창설되었습니다.

6대주 42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WILPF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전세계의 여성들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UN에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평화단체로서 우리는 세계주요사안과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불평등의 원인 사이의 관계와 이 문제들이 평화와 안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개념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 21세기까지 '평등, 발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최근에 지침이 되었던 북경여성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경에서 열린 UN 여성대회에서 '평화문제'가 '여성과 무장충돌'이라는 제목 하에 토의되기는 했으나 계속 창조되고 변화하는 과정인 평화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평화란 단순히 전쟁의 부재 혹은 날카로운 대립의 종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세계여성대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라는 행동강령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을 주로 전쟁의 피해자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다지 평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분쟁의 해결점을 찾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여성의 공헌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토의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비정부기구 회의에서 여성들이 토로하는 평화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는 정면대치되는 것입니다.

북경여성대회는 국제여성운동이 특별한 이익집단에서 국제적 의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집단으로 발돋움한 것을 상징해 줍니다. 이 여성대회는 단순히 여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 사안에 대한 논쟁에 직접 참가한 여성들에 의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UN 여성대회는 여성의 시각을 세계 의제의 중심부로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여성들의 공동작업과 지혜를 바탕으로 열린 북경대회는 국제적인 여성운동의 길을 트

면서 여성들의 성공담을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북경대회는 전세계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원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여성임을 자축하며 공동체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의견과 경험을 포용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경대회에서 여성은 지도자로 거듭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북경에서의 경험을 그냥 잊혀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매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경에서의 '평화의 천막' 은 전 세계의 여성들이 자리를 함께 한 중심적인 회합으로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의견 분석과 행동방침에 관한 사항들을 교환하고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각 여성 개인과 단체들은 새로운 연구의제, 새로운 국제적 네트워크, 새로 연마한 로비 기술을 지닌 채 북경대회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연구관과 교사들은 대학과 학교에서 교과과정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 재단들도 자금지원사항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구동구권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를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1990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원 및 옹호를 의한 네트워크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남녀 모두 권한을 전쟁의 황폐함과 환경파괴의 폐허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재구축하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를 기초로 한 조직이라는 맥락에서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도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이제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과거 난민이었던 여성들이 NGO를 결성, 사무실을 개설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베르타 멘추와 난민 조직관처럼 과테말라에 있는 농장으로 돌아가 경작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아공이나 우간다에서처럼 소수민족 및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국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잘 이용하기 위해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은 많은 여성들이 부정과 무위로 이미 지쳐있는 억압받는 계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경여성대회의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바로 토론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일 곳입니다.

'세계은행 여성 감시단'이라는 단체는 세계은행이 개도국에서 여성들을 위한 기회에 더 많은 자금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등을 쟁취하자' 라는 여성단체는 UN 사무총장직에 여성후보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한 여성단체가 억압정책을 펴는 새 정권에 대항하여 전세계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불굴의 힘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최근 여성 대표단이 쿠바에 모여 쿠바와 미국간의 평화를 위한 주창과 국제정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들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성들의 연대'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은 국제정책, 분쟁해결, 평등한 발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여성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처럼 이들도 미국과 쿠바간에 적대감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난 2월 '구조를 위한 형제'라는 구호단체의 비행기가 추락하고, '헬름스 버튼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한 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계획은 미- 쿠바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쿠바, 캐나다, 중남미, 카리브해 등지의 여성들의 힘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쿠바는 1998년 '국제여성 연대 회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여성들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국제적 결정을 하는 네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WILPF가 제안한 '여성의 평화와 정의 조약'은 북경대회이후 다시 그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각 국가와 북남미지역국민들과의 관계를 대폭 변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조약은 여성시민외교, 국제여성단체의 자매애와 협력 등 여성들을 위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60, 70년대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여성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함께 취한 조약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은 여성들이 평등, 평화, 발전을 구축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여성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표방한다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한 여성대표단이 캄보디아에 가서 그 곳에서의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목격하고 평화운동가이자 아파르타도시 시장인 글로리아 쿠아르타스 여사를 보호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했습니다. 이 대표단은 또한 마약과의 전쟁이 가져올 영속적인 폭력에 대해 전 세계를 교육하고 홍보하고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마약과의 전쟁의 내용을 파헤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약과의 전쟁이 미국과 중남미의 빈민층에서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여성단체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문제에 대해 전세계에 이를 폭로하고 논쟁하고 알리는 일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뿌리뽑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여 민영화정책의 결과와 불공정한 부의 분배에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노동자회의'가 쿠바에서 역시 열릴 것입니다.

'폐지 2000'은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입니다. WILPF의 '여성은 핵감축을 주장한다'(WIND : Women insist on Nuclear Disarmament)라는 캠페인은 각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핵감축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의 캠페인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세계적인 관심이 인권유린을 종식시킬 수 있는 노력에 도덕적, 정치적 무게를 더욱 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 여성이 여러 가지 의견과 행동을 교환하고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들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성운동이 다른 운동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경여성대회에서 우리의 경험과 의사소통과 저항의 이야기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여성운동의 풀뿌리 단체에서부터 그토록 폭발적인 열기를 내뿜을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흐뭇한 일입니다.

북경대회가 남긴 업적 중 행동강령이야말로 여성조직의 경쟁력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활력을 더한 제 1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강령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와 경험, 이상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동강령은 전 세계 정부에게 도덕적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에게 합의된 정책의 실행을 상기시켜 주는 변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 정부가 북경대회에 지지한 내용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과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항하기 위한 강력한 지도력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나라들의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 회원국들은 (한국이 최근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국제투자협정 즉 다자간투자협정 (MAI)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협정은 경제 세계화를 가속시키는 동시에 투자정책을 규제하는 각 국가의 민주주의의 역량을 크게 제한할 것입니다.

이 협정에 대한 협상은 지나 2년간 비밀리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한 어떠한 공공토론이나 논쟁도 없었습니다.

다자간투자협정은 지난 50년간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법이 쌓아 온 모든 업적을 크게 잠식시킬 것입니다. 북경대회에서 최근 여성들이 채택한 전진전략과 행동강령도 각 기업들이 자연의 현상과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기본이 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함에 따라 쉽게 좌절되고 사라질 수도 잇습니다.

다자간투자협정은 각 정부가 경제세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 - 부와 소득의 격차 증대, 국내외로 독점의 증가, 인권에서 환경, 노동권에서 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의 통제능력 상실 - 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잠식할 것입니다.

21세기 세계평화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세계 500대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힘과 우위를 법에 명시하려는 노력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화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 기업, 법, 민주주의에 관한 프로그램(The Program On Corporations , Law and Democracy : POCLAD)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지니아 라스무센은 최근 MAI에 관한 미국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MAI가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임무는 "누가" 우리 인간과 지구의 환경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대화체를 형성하고 더욱 심도 있는 이해를 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기업간의 적절한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라스무센씨는 우리가 우리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기업의 폐해와 과도한 힘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접근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규제와 조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패널이 강요하는 종속과 억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화와 공동사회를 정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기업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1세기라는 시대와 삶이 시장원리에 굴복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민주적 선택의 결실에 좌우될까요?

다자간 투자협정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와 안보는 여성이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 여성의 힘을 되찾고 가부장제도의 상징인 기업체의 횡포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지도력을 쟁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이 각 지역, 국내외에서 권력이 행사하는 곳과 의사결정, 진보,

발전과 투자의 조건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거듭 주장하는 것은 인간사회와 문화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요, 시대의 요청입니다.

우리 여성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민권 운동 차원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성운동은 여러 가지 사고와 의견을 낳고, 국민토론을 조성하며 국가의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모든 종류의 토론과 심의과정에 당연히 참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의 시각과 경험은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참여해야겠다는 의지와 세계 도처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당당히 나서서 전략적 구상과 정치운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빈곤할지 모르나 지식이 있고 이 사회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의 이상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연민으로 연대하여 탐욕과 경쟁, 지배가 이끄는 폭력과 전쟁의 문화를 대항하여 존중, 협력, 동반자관계에 기초를 둔 평화의 문화를 구상하고 창조하기 위해 여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여성의 임무와 기회를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며 여성의 국제적 협력과 지도력은 21세기에 우리의 생존과 지속적인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